

울릉신문 직원 모집

- 경력기자(언론매체 3년 이상)
- 기자(소정의 교육 이수 가능자)
- 마케팅 팀장(신문관련 부대행사 광고, 지국 경력 3년 이상)
- <메일 jleesabu@hanmail.net>
- ☎울릉신문사: 054)791-3399

울릉신문

기사 제보 및 광고주 모집

- 불·탈법 현장, 강압 행정집행
- 선거법 위반사례 등 사회 전반
- 부동산 매매, 임대, 상품PR 등
- <메일 jleesabu@naver.com>
- 제보 및 광고: 054)791-3399 (대표전화)1899-7489

www.울릉신문.com 대표전화 : 1899-7489 독도를 품고 있는 국민의 신문 북 0001호 2022년 10월 25일 ~ 31일

경북도, 독도의 달... '영토주권의식 강화에 중점'

‘코로나19’ 상황과 태풍 피해 복구 속 행사 최소화
학술, 독도인문학교실 등 내실 있는 행사로 관심 제고

경상북도는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선보인다. 코로나19 상황과 동해안을 강타한 태풍 피해 복구를 감안하여 다중이 모이는 집합행사를 최소화하고 실속 있는 행사 위주로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국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독도이용수비대 활동의 객관적 재평가를 통해 대외적 위상

제고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독도 이용수비대가 마신 생명의 샘 물골 복원 프로젝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또 21~22일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UN해양법 협약 체결 40주년을 기념해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한 해양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15일에 일본오사카에서 ‘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이 개최하는 ‘시마네현 중등 부교재 중 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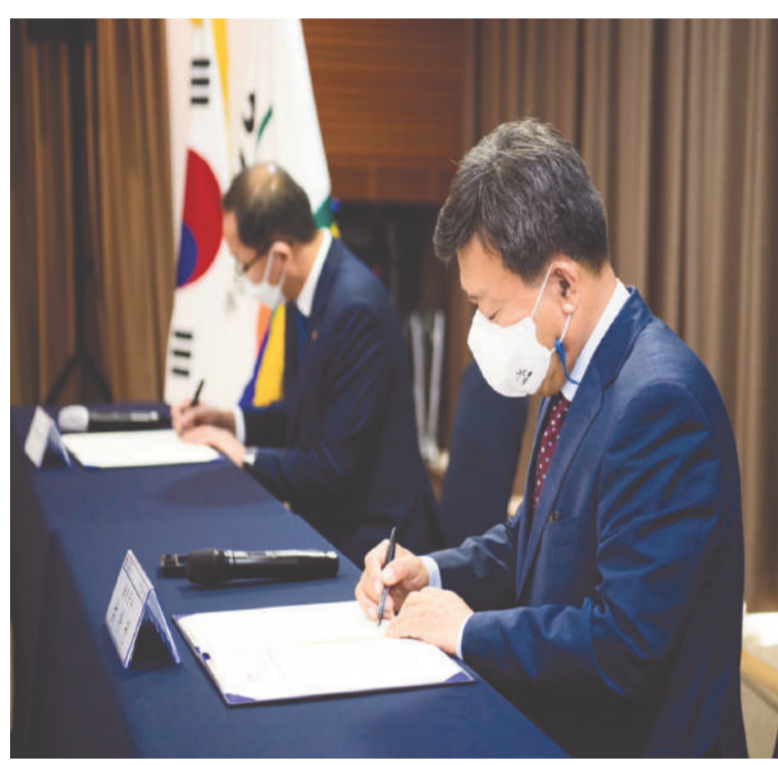
관련 내용에 대한 반론’ 특강을 후원한다. 독도 소재 상품의 산업화·생활화를 위해 2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제4회 독도상품 비즈페어를 28~30일 칠곡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 행사장에서 진행한다.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행사도 다양하게 개최한다.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바보알기 교육(5회)을 실시하며 25일에는 대학 독도동아리에서 온라인

으로 독도퀴즈를 진행한다. 22일 경산 남천둔지 야외공연장에서는 독도수호 걷기대회를 포함 영일대 장미원 일원에서는 독도사랑 페스티벌도 진행한다. 한편 지난1~2일 울릉도에서 독도 영토주권 의식 고취를 위해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와 4일과 11일에는 대구 고산도서관에서 독도인문학 교실을 개최한 바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제국 치



령 반포 122주년을 맞아 독도가 평화로운 대한민국 영토라는 국제적 위상 제고와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독도 영토 주권 공고화에 내실 다지겠다”고 밝혔다. /정대휘 기자

울릉군, “제주의 현재에서 울릉의 미래를 찾다”



제주시와 상호협력사업 협의 및 벤치마킹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시를 방문해 울릉군과 제주시간의 해녀문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고 울릉 100만 관광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환경 산업의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주의 핵심 관광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해녀문화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산하 쓰레기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견학을 통해 울릉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남 군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만나 해녀문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해 논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지만 해녀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녀문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와 경상북도, 울릉도 간의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남 군수는 “제주해녀문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일원이 돼 세계적인 관광문화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매력이 넘치는 생태 관광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울릉군 관계자들은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를 방문해 현지 시설들을 견학했고 이 자리에서 향후 관광산업의 발달에 따른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의 경우 증가하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제주시의 매립장과 침출수 저류조, 재활용 선별시설, 스티로폼 감용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소각장 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이 그것이다. 특히 매립가스 발전시설과 음폐수 유분 분리 시스템은 쓰레기 처리기능에서 탈피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을 구축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울릉군은 100만 관광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써 제주의 환경SOC 산업을 벤치마킹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한권 군수는 “매력 있는 생태관광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발전을 줄여야 한다”면서 “생태관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오늘 제주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울릉군에 잘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지면안내	3면 남한권 군수의 민선8기 100일의 군정 15면 제주 '2022 세계유산축전' 폐막	5면 (특집)천혜의 섬 '울릉도' 16면 경북도 4년만에 국정감사 수감	9면 (칼럼)자유언론의 진정한 의미와 현실 19면 독도울릉도아리랑 범 국민 전파
------	---	--	---

경 **축**

2022 울릉군민의 날 및 제53회 울릉군민체육대회

-울릉신문사 임직원 일동-

2022년 10월 25일(독도의 날)

경북도의회 예결위,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원안대로 의결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불용액 최소화 등 경상북도 6건, 도교육청 5건의 부대의견 채택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불용액 최소화, 출연금 적정교부 및 관리 철저, 성인지 예산사업 발굴 개선 등 경상북도 6건과 경상북도교육청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의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 개선을 요구하였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기초학력 향상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 미달 초

등학생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지적하며 관심도 향상을 위한 학부모 교육 등 예산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집행률 부진과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많은데 비해 시군의 집행 및 사업 실적은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검토와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농민사관학교 수료생에 대한 미흡한 사후 관리를 지적하고 향후 농업인 재교육을 활용한 친환경 선진 농업 교육·실습장 제공 확대를 당부하며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와 같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등 유기적인 사업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의 예산 절감방안도 제시하였다.

노성한 의원(고령)은 2024년부터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중단이 예상되는 바, 지원 가능한 대체 사업 발굴 등 수출농가를 위해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전년도

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새롭게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농어촌진흥기금 중 650억원의 융자사업이, 짧은 신청기간과 홍보 부족 등으로 집행률 45%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상시신청 체계 확립과 쉽고 빠른 신청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을 제시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및 경북 메타버스 사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데이터 거래소 활용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고, 도교육청의 학교회계 관리 및 결산서 작성 전반에 대해 미흡한 점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비 집행 부진 관련 부지선정 등 절차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토록 주문하였다. 또한 도교육청의 부적절한 예비비 지출을 지적하며 향후 사전 예측이 가능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 사용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도비 보조사업 별 상이한 도비보조비율에 대해 지적하고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배분할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 시 정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고 채무에 대해 언급하며 전반적인 재정 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운용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경북농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발주 전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해 이월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월사업 전반에 대해 예산 편성시 사업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액이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특성 맞는 치안 모델 개발과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해 자치경찰제가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하천정비공사 추진 시 반드시 사전에 재해예방사업 등을 완료하여 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학교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단가가 17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인 점을 지적하며 식사는 성장기 아이들의 인성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급식단가 인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원전해체 기술개발 등 원자력 관련 산업 적극 지원과 수산업과 관광 연계 플랫폼 구축 등 동해안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2025년부터 전면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도시지역과 농어촌 학생

수 차이를 언급하며,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 농산어촌 고등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학생건강관리체계구축사업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며 명시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해당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사업이므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에도 관심을 갖고 훌륭한 경북의 인재 양 성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편성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업과 일반만 사용하고 다음연도도 이월해 소중한 재원이 사장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예산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하고, 남은 재원은 시급한 주민속원 사업에 우선 투입해 재정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도교육청에 대해 미수납액 6억원에 대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승인을 받았다.

‘독도 영유권 사업 권한, 경북도로 이양돼야’...경북시군의장협 정부 제출 의결

공경식 울릉군 의회의장 발의, 의장협 전원동의

독도입도센터 건립 등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모든 권한을 경상북도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경숙)는 지난 14일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독도 담당 지방정부인 경상북도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영천 한의마을에서 열린 제304차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필요성을 제안하고 23개 시·군의회의장 전원 동의를 도출해냈다.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은 2008년, 정부의 ‘독도영토관리대책단 구성을 통해 ‘독도종합해양과학기

건설’, ‘독도방파제 구축’ 및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3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현재는 모두 백지화되거나 무기한 보류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도 방문객의 안전을 지키고자 건립되는 독도입도지원센터마저 환경오염, 문화재 경관 저해 등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2014년 이래 현재까지 매년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불용 되고 있어 각계

의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모든 권한을 경북도에 이양할 경우 정부는 외교적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지방 정부와 민간의 협조체계까지 구축되면 일본의 어떠한 책동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교하고 강건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경식 의장은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의 뒷걸음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독도 외교전략에 기

인한다”면서 “정부의 독도 관리가 이처럼 한계를 지날 수밖에 없다 면 외교적 부담이 덜하고 운신의 폭도 넓은 경상북도로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영주서 의정 활동 펼쳐

경북테크노파크 경량소재융합기술센터 점검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관계자 격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5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10월 11일 경북 북부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지역기업 지원 방안 수립

을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으며 아울러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먼저 오전 일정으로 경북테크노파크 경

량소재융합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의 운영 및 추진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센터의 역할을 확인하고 중소기업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후 일정으로는 풍기인삼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 K-인삼의 산업화·세계화를 열기위해 영주시에서 개최하는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인삼엑스포의 문화행사 및 콘텐츠를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활동이 많이 위축했다.”면서 “앞으로 기획경제위원회는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북이 될 수 있도록 현장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허복 독도수호특위 위원장 선출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제3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2대 전반기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사령탑으로 허복(구미) 위원장과 조용진(김천) 부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땅이자 우리의 생활터전이며 민족 고유의 역사임에도 광복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강행,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및 외교청서에 영토 표기 등 독도에 대한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독도 침탈야욕과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는 행위는 일본이 여전히 제국주의적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방증이다.

경북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차원에서 독도수호를 전담할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과 야욕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제사회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허복 위원장은 “독도 수호를 위해 지역 구분 없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신 특위 위원들과 함께 독도 수호를 위한 조치들을 면밀히 살펴 보면서 독도 영유권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한권 군수의 민선 8기 '100일의 울릉 군정'

남한권 울릉군수가 지난 8일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았다. 남군수는 취임 100일 기념행사 대신 지역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국비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근 남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군민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며 100일을 보냈다"며 "무사히 군정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군민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4년이 울릉 미래 100년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울릉에 사는 것이 자랑이요 행복임을 느낄 수 있도록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먼저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방문 행정 중심의 업무 추진

=주민불편해소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과 동시에 약속한 65세 이상 어르신 선풍예약 도우미 창구 운영을 시작하고 울릉공항 건설사업, LPG 배관망 사업, 추산 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등 주요 사업장 33개소 실제방문을 통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에 나섰으며 울릉군 어업 전진기지인 저동항 일제 점검을 시행하여 수년째 방치된 불법 적치물을 민관협력으로 정비하고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 등 폐적하고 아름다운 항구를 조성하고 있다.

■울릉의 성장동력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취임 첫 방문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방문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교육감에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울릉군 개척'과 '수확여행단 유지'를 제안했고 9월 전국 시·도 교육청 독도 교육담당관 워크숍에 참가해 전국 초·중고 수확여행단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행정에 나서는 등 새로운 관광상품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해 울릉군청 소유의 복구장비 6대(제설차 2, 노면정소차 1, 살수차 1, 미니제설농기계 2)와 지원인력 7명, 자원봉사자 16명을 파견해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실시로 복구작업에 힘을 보탰으며 이에 포항시민들은 열렬하고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전략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울릉군-제주시 공동발전 및 해양산업 교류 업무협약, 울릉군-아주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 학위과정 교류 협력 업무협약, 울릉

색,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의견을 제시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했고 청년정책 추진과정에 울릉군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울릉군 청년정책참여단을 구성하여 발대식을 가졌다. 또한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도 진행중이다.

■앞으로의 계획

=민선8기 울릉군정은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욱 편안해진 바닷길과 새롭게 열리는 하늘길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는 울릉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새 울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새 울릉" "군민 행복이 최우선, 지역 현안 해결 최선"

개최된 오징어 축제는 오징어 어획량 증가 시기에 맞춰 축제 일정을 변경하고 본 행사장을 저동 위관장 일대에서 저동 여객선터미널 일대로 옮기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역대 최다 관람객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광복 77주년 경축 태권도 퍼포먼스 행사 개최, 해변가요제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대중 대비 재난 대응에 행정력 집중

=경북지역 사상 최대 피해를 준 태풍 '힌남노'의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마을별 책임공무원 38명을 배치하는 등 상황중료시까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 결과 공공·사유시설 8곳에 비교적 경미한 피해만 있었으며 초유의 피해를 입은 자매결연 도시인 포함 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

군-한국섬진흥원·경상북도 경북동해안의 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비 사업 발굴·육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북면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각각 146억원, 15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울릉공항 건설사업, 울릉(도동)항 여객부두 연장사업, 남양3리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29개 1185억5900만원의 국비 사업도 기재부 예산에 반영해놓은 상황이다.

■미래를 선도하는 청년정책의 첫걸음

=울릉군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청년문제 발굴 및 개선방안 모

름"으로 비전으로 정했으며 ▲군민이 주인인 열린 군정 ▲다함께 누리는 희망복지 ▲웃음꽃 피우는 지역경제 ▲새로운 가치의 농수산업 ▲매력이 넘치는 생태관광 5대 군정방침을 바탕으로 군민이 주인인 열린 군정을 위해서는 혁신행정 구현을 위한 소통강화, '나도 군수다' 민원과 비판코너 신설, 주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군수 서비스' 실시하고 다함께 누리는 희망복지를 위해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을 펼쳐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울릉 상주 웰기 운영과 더불어 내부의 의료요량을 높여 기본 의료체계를 만들은 물론이며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한



다는 방침이다.

또한 웃음꽃 피우는 지역경제를 위해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학분교, 영어마을 등 교육 기반시설 유치·확충, 울릉고 명문만들기 지원, 출산·결혼·육아 지원 정책, 귀농·귀어·귀촌자 정착 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가치의 농수산업 건설을 위해 인력 운영 지원센터 확대 운영, 택배시스템 개선, 국제 슬로푸드 등재 먹거리 상품화 개발, 농수산물 고부가 가치 실현, 울릉산립 고소득 상품 개발 및 임업상품 개발하는 등 울릉브랜드 세계화를 추진한다.

매력이 넘치는 생태관광을 위

해 공모선과 대형여객선의 취항, 위그선의 현실화, 2025년 울릉공항 개항에 발맞춰 불거리, 먹거리, 쉬고 즐길 거리, 섬 없는 사계절 관광이 될 수 있게 울릉도 웰니스 관광 기본계획 수립, 마을별 상징적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숙박시설 유치·확충, 울릉의 상징 친환경 체험시설 신설, 주차·교통 및 상·하수도 처리시설 확충 등 100만 관광객 대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추진 중인 울릉공항 건설,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학 기자



군형, 창의, 희망, 힘이 되는
울릉군의의회



발행인의 발길 따라 ①衆生寺



▲전각 아래 보존돼 있는 마애보살삼존좌상. 지장전이란 이름처럼 두건을 쓴 지장보살의 모습을 한 보살좌상이 본존으로 그 옆에는 무장을 하고 있는 신장상들이 협시하며 호위를 하고 있다./사진=정대휘 기자

경주시 배반동 640-1번지 일원에는 '배반동사지'라는 절터가 남아있다. 이 절터는 '삼국유사'에 자주 등장하는 중생사의 옛 터라고 여겨지는 곳이며 지금도 이 터에는 중생사라는 절이 들어서 있다.

지난 16일 중생사를 찾은 필자는 마루에 걸터 앉은 노스님을 친견했다. 팔순을 훌쩍 넘긴 노스님은 "한 때 이곳은 서원이 성취된다는 입소문으로 불자들이 넘쳐났지만 지금은 오는 불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운을 찌었다.

이 곳에서 50년째 기거하고 계신다는 노스님은 "이곳 중생사를 불국사 비금가는 사찰로 만들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중생사(衆生寺)는 백률사(栢栗寺)와 민장사(敏藏寺) 등과 함께 신라 때의 대표적인 관음도량이다. 그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三

國遺事)』 '삼소관음중생사(三所觀音衆生寺)'조에 서술되어 있다.

중생사는 현재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경주의 낭산(狼山)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사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찰의 이름이 무엇인지, 언제 창건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전혀 없다. 다만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의 단편적인 기록과 절터에서 반출된 문화재를 통해 몇 가지 정황을 유추해 볼 뿐이다.

아쉬운 점은 일제강점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절터에 있던 석조문화재를 옮기면서 단 한차례도 지하유구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절에는 아주 신묘한 관음보살상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가 세 가지 전해오고 있다.

**수많은 기적 일으킨 관음보살상
낭산의 여신이라는 마애삼존상
서원 깊으면 관음보살상 만날 수도**

첫번째가 중국 천자가 총애하는 미모의 공녀가 있어 그녀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한 화공에게 그림으로 남길 것을 명했다.

그런데 그 화공이 그림의 완성단계에서 그만 붓을 잘못 떨어뜨려 배꼽 밑에 붉은 점이 찍히고 말았다. 당황한 화공은 이를 수정하려 갖은 수를 썼으나 고칠수 없어 황제에게 그대로 바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본 황제는 "갑취진 배꼽 밑의 사마귀를 어찌 알고 그렸느냐"며 화공을 옥에 가두고 형벌을 주려했다. 그때 승상이 "저 사람은 마음씨가 정직해 거짓말은 안할 것입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황제는 "그래, 마음씨가 어질다면 내가 어제밤 꿈에 본 사람의 형상을 그려 바치게 하라. 맞으면 그를 놓아 주리라"고 말했다. 참으로 난처한 일이었다. 그런데 화공은 꿈에 본 사람을 그렸다.

이는 다름 아닌 십이면 관세음보살상이었다.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허공에 나타나 그 모습을 보인 관세음보살. 그 놀라운 가피로 목숨을 구한 화공은 박사(博士) 분절이라는 사람과 함께 신라 동경(지금의 경주)에 이르러 중생사 관세음보살상을 봉안했다.

두번째는 고려 초의 명신 최승로(崔宗魯)와 관련이 있다. 신라 말 경애왕 때 최은함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이 절에 가 보살상 앞에서 기도했더니 태기가 돌아 아들을 낳았다.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백제의 견훤이 서울을 쳐들어와 성 안이 온통 혼란에 빠졌다.

은함이 아이를 안고 와서 아뢰었다. "이웃 나라 군사가 쳐들어오니 일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갓난아이가 거들 중하오나 함께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진실로 대성(大聖)께서 주신 아이라면 바라건대 그 힘을 빌려 이 아이를 키워주시고 우리 부자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물을 쏟으며 비통하게 세 번을 울면서 세 번을 아뢰고 강보에 싸서 보살상 아래 감추고 하염없이 돌아보며 갔다.

새로 만들 사자성어 삼음삼고(三泣三告)가 여기서 나온 말이다. 최은함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력으로 는 어찌 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찾은 방법이 아이를 점지해 준 보살상 앞에 와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석 달도 안 된 아이를 그림 속의 보살이 무슨 수로 지켜준단 말인가. 죽기 아니면 살기, 그저 마지막 수단인 셈이다. 그런데 이야기는 기적을 향해 간다. 보름쯤 지나 적들이 물러가자 최은함은 부랴부랴 절로 달려왔다.

기적이었다. 아이는 피부가 마치 새로 목욕한 듯, 몸이 반달반들하며 입 언저리에서는 아직 젖내음이 나고 있었다. 안고서 돌아와 걸렸는데 자라자 남보다 총명하기 그지없었다. 이 사람이 바로 최승로이다. "눈물을 쏟으며 비통하게 세 번을 울면서 세 번을 아뢰고 강보에 싸서 보살상 아래 감추고 하염없이 돌아보며 갔다."

최승로의 이야기에서 다시 읽어보는 삼음삼고(三泣三告)이다. 전쟁 통에 같이 죽을 수는 없어서 아이라도 살려보자고 생각한 방법이 관음보살상에게 의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당시 중생사 주지 성태스님이 보살님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 "저는 이 절에 오랫동안 살면서 항을 부지런히 올리고 밤낮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절 밖에 나

는 것이 없어 더 이상 머물기 어려우므로 다른 곳으로 옮겨려고 합니다"라고 기도를 올렸다. 기도를 마친 스님이 깜빡 졸다가 꿈을 꾸었는데 한 성인이 나타나 "그대는 이곳에 머물라. 내가 시주를 모아 항을 괴울 비용으로 쓰게 하리라"하고 일했다.

그후 13일이 지났을 때 갑자기 어떤 두 사람이 말과 소에 짐을 싣고 사찰을 찾아왔다. 그들은 "한 스님이 찾아와 '나는 동경(東京) 중생사에 머문지 오래인데 시주를 받으러 왔다'고 하길래 이웃사람들에게 시주를 거둬 쌀과 소금을 얻어 싣고 왔습니다"며 공양을 올렸다.

시주를 나간적이 없는 주지스님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법당에 들어갔던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바로 이 부처님이 시주를 구하러 왔던 스님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기이한 현상을 부정하는 많은 현대인들은 영험담을 그냥 전설로만 여긴다. 중생사 이야기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삼국유사는 이를 사실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 근거로 시대적 상황과 어린아이였던 최승로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으니 말이다.

천년 전 신라인들이 염원했던 이야기 속의 관음보살상은 오늘날로 치면 행정당국에 대한 기대치 일 것이다.

주민들 개개인이 도저히 감당 못할 어려운 시안들은 행정당국이 직접 나서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장애우, 노인층, 학대받는 아이들은 오늘도 '삼음삼고' 하고 있다.

/정대휘 기자



▲두마리의 해태가 대웅전격인 비로전을 수호하고 있다./사진=정대휘 기자



▲비로전을 바라보는 우측으로는 옛 석탑재가 나란히 놓여 있다./사진=정대휘 기자

“천혜의 섬...시간의 흐름에 가려진 울릉도 신비를 찾아”

울릉도의 부속섬중 가장 큰 섬...죽도 행남등대 산책로...삼선암 국가지질공원 울릉도 코끼리바위...자연림 자전거길

죽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중 가장 큰 섬으로 원래는 울릉도와 하나였으나 오랜 세월 파도의 침식으로 인해 현재의 모습으로 떨어져 나간 지질명소이다.

대나무가 많이 자생해서 대섬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주민 1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섬 전체 트레킹은 1시간 30분 시간이 소요되고 울릉도 본섬에서 섬으로 운항하는 유람선이 매일 2회 운항하고 있다.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죽도에서 울릉도 관광중 빼놓을 수 없는 보석 같은 여정이라고 말한다.

울릉군 북면 천부리 산4-12번지에 위치한 삼선암은 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로 등재되어 있다.

조면암으로 이루어진 삼선암은 본섬의 일부였으나 수직절리를 따라 상대적

으로 약한 부위가 파도의 침식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되었다.

특히 일선암, 이선암, 삼선암으로 구성된 3개의 섬은 울릉도의 3대 비경중 제1경으로 꼽히고 삼선암은 보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다.

또한 삼선암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바다의 아름다움이 어울려져 관광명소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국가지질공원의 지질 명소중 하나인 도동 행남등대 산책로는 도동에서 저동 촛대바위까지 기암절벽과 자연 천연동굴 바위와 바위 사이를 잇는 무지개다리 와 발아래로 에메랄드빛 푸른 물결과 바닷속의 수산동식물들이 아름답다.

우리나라 최고의 해안 비경을 자랑하는 행남등대와 해안산책로가 아름다운 이유를 알 수 있게 한다.

도동에서 행남등대까지의 힐링할 수 있는 거리는 왕복 2시간정도가 소요되고 저동 촛대암까지 편도는 1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코끼리바위는 울릉군 북면 현포리 아름다운 현포항에서 약500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대형 코끼리 한 마리가 딱하니 자리잡고 있는 광경이 참으로 신기하기만 하다.

이곳 북면 소재지는 삼선암, 관음도와 함께 울릉도 해상 3대 비경으로 손꼽히는 공암이 바로 그 주인공이고 주상절리 바위 앞쪽에 생긴 큰 자연굴이 마치 코끼리가 코를 바닷속에 담그고 물을 마시는 형상을 하고 있다.

10m의 자연굴은 소형선박이 왕래할 수 있으며 또한 스낵스쿠버들이 최고의 포인트로 인기가 최고다.



▲울릉도 부속 섬 중에서 가장 큰 죽도에서 바라본 울릉도./울릉신문

울릉도의 자전거길은 해안일주도로 44km를 달리는 코스와 성인봉 원시림을 중심으로 형성된 옛길을 체험하는 내륙산악코스로 구분할 수 있다.

2만5000년전 형성된 화산암의 기암괴석을 병풍삼아 쪽빛 동해바다의 푸름을 맞으며 해안선을 달리면 삼선암, 코끼리바위, 죽도, 관음도 등 울릉도가 자랑하

는 천하절경이 한눈에 볼 수 있다.

내륙코스는 경사가 심하고 비포장 흙길이어서 많이 힘들지만 울릉도의 자연 원시림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성인봉 알봉코스는 마치 자연인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며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

거기에 울릉도 나리분지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자란 산채를 주 식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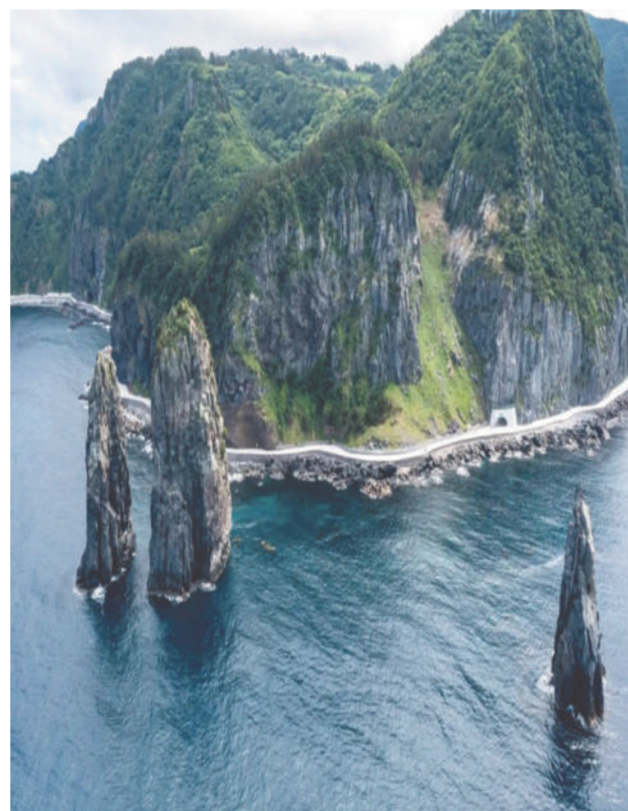
로 조리한 웰빙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최근 울릉도 밤바다에는 울릉도 연근해 오징어잡이에 나서고 있는 어선을 만날 수 있으며, 성어기가 되면 오징어잡이 선단이 연출하는 어화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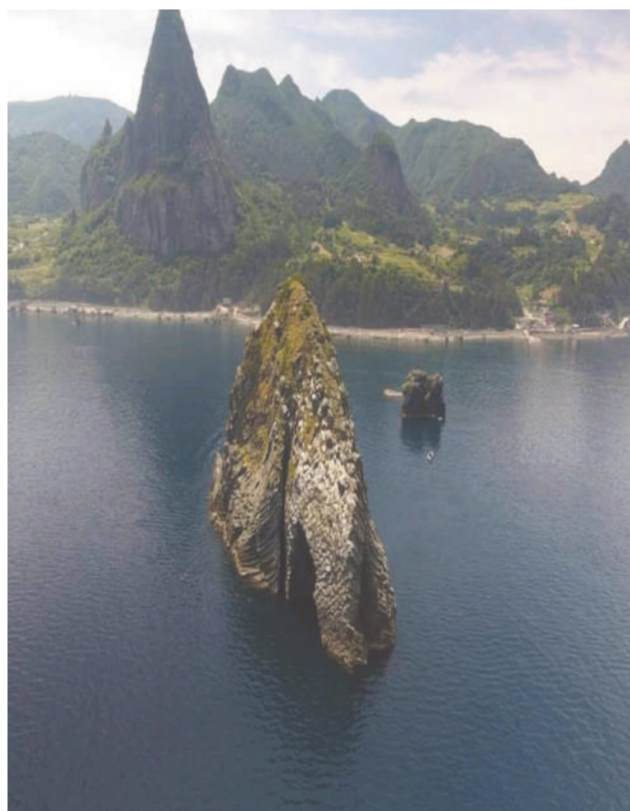
/김경학 기자



▲행남등대./사진=울릉신문



▲삼선암./사진=울릉신문



▲코끼리바위와 촛대바위./사진=울릉신문



▲자연원시림을 느낄 수 있는 자전거 길./사진=울릉신문


달식문화
GCTO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함께해요

달식문화

다 함께 실천할 때 모두가 안심합니다.

달식문화는 덜수저, 덜집게, 덜국자, 덜접시를 사용해서 음식을 덜어 먹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문화 입니다.

관광단지투자문의 | 054-740-7375

안양시, 환경부 '2022 환경관리실태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

최대호 시장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안양시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2022년(20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난 13일 안양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234곳을 배출업소 수 규모에 따라 5그룹으로 나눠 실시한 평가에서 안양시가 배출업소 101~250개소인 3그룹에서 82점을 받으며 평

가순위 2위를 기록했다. 3그룹 내 경기도 시군으로는 유일하다. 또 그룹 중 평가순위에 오른 경기도 시군의 동두천시(2그룹, 3위, 80.5점), 수원시(4그룹, 5위, 73점), 안산시(5그룹, 4위, 63점), 파주시(5그룹, 5위, 60.5점)보다 높은 점수로 평가순위에 올랐다. 환경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배출

업소 환경관리, 위입업무 관리·감독, 배출업소 협업관리 3개 분야를 점검률, 위반율, 오염도 검사율, 단속인력 교육, 환경관리 홍보 실적, 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자율점검업소 관리, 환경감시네트워크 등 총 8개 지표로 평가하고 자체 검증과 타 지자체 교차 검증을 거쳐 최종 평가순위를 결정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금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배출업소 환경관리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지자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한편 안양시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은 지난해 164개소에서 올해 181개소로 증가했으며 안양시 배출업소 점검 계획에 따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있다.

/정대휘 기자



계양구시설관리공단, 계양산 둘레길 주변 플로깅 활동

인천광역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순)은 최근 공단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계양산 둘레길 주변(장미원, 정매이교개) 일대로 '계양구 플로깅 활동'을 실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플로깅(plogging)은 산책이나 조깅을 하며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공단 임직원

서울시, 긴급복지 핫라인 가동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지원까지 한번에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자치구별 지원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복지제도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가 없도록 다양한 발굴방안을 마련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위기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의 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자치구별 고위험 지표 선정하여 조사하고 '세대주 사망가구' 지표와 같은 실효성 높은 정보를 전수조사함으로써 발굴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의료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병·의원, 약국 등 지역의료단체와 협업하여 '복지상담센터'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의약기관 방문이 잦은 사각지대 주민이 쉽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0월부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위기가구에 대상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금융 등 전문분야 상담을 지원하는 등 위기가구에 대한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좀 더 쉽게 신청하고 상담받을 수 있고, 우선 긴급한 위기 상황에 숨통을 터어드릴 수 있도록 빠르게 지원하며 발굴된 가구의 실질적인 위기 해소를 위해 지원 가능한 복지제도 연계 방안을 다각화해 나가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분들은 부담 없이 언제든지 120다산콜센터를 통하거나 직접 해당 자치구 내복지상담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가구가 전문적인 상담과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20다산콜센터와 연계한 '복지상담센터'를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한다. 지난 9월 30일에 출범한 '복지상담센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상담을 지원하며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상담 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원속도를 높이고 상담을 통해 위기 가구가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나 주변의 생계가 어려워 보이는 위기 이웃을 발견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3번(긴급복지, 코로나 및 행정일반)을 누르면 다산콜 상담사가 해당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로 연결하여 긴급 복지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자치구 '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 받을 수도 있다. '복지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의 경우 120다산콜센터(24시간 운영)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날(공휴일 제외)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긴급위기 가구가 빠르게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생계비) 선지원을 적극 추진(최초 상담후 4~5일내 지급 예정)한다. 긴급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1회 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며 이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돌봄SOS서비스 등의 공적지원뿐 아니라 민간지원 등 지원 가능한 모든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복지상담센터'는 전화 수신 후 다음날 오후 6시까지(영일 근무시간 기준)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결정 후 2일내 동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추가 상담 후 1~2일내 지급하게 된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일회성 긴급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복지제도권 내 돌봄대상으로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복지·돌봄서비스를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SW교육 플랫폼 운영 개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10월부터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공교육에서의 코딩교육을 강화하는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SW교육 플랫폼'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SW교육 플랫폼(sw.sen.go.kr)'은 온라인에서 코딩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맞춤형 SW교육 플랫폼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생과 교사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SW교육 플랫폼'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며 컴퓨팅 사고력을 배양하는 '문제해결 코딩',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직접 게임, 앱, 메타버스 등을 제작하는 '창작 코딩', △SW, AI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좌듣기'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해결 코딩'은 전국 최초로 코딩 문제를 자동으로 채점해 주는 온라인 저지(Online Judge)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시된 코딩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면, 자동으로 채점하여 그 결과를 학생과 담당 교사에게 전달한다. 또한 교사는 분석 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문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수행평가도 진행할 수 있다. '창작 코딩'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작은 단위의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를 모두 해결하게 되면 게임, 앱, 메타버스, 피지컬 컴퓨팅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직접 만든 게임이나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릴 수 있으며 메타버스나 피지컬 컴퓨팅 작품은 플랫폼에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강좌듣기'는 언제 어디서나 SW, AI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는 'MOOC' 시스템으로 제공한다. 기초 SW,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관련 강의가 탑재되어 있으며, 민·관·학이 협업하여 기초부터 전문가 영역까지 추가적인 콘텐츠를 탑재할 예정이다. 또한 교사가 직접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연수와 연계한 현장 밀착형 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백만 인재 양성이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디지털 인프라와 환경 구축,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디지털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SW교육 플랫폼 운영을 통해 즐겁게 코딩을 배우며 창작의 성취감을 가지게 하고, SW교육의 질을 높이는 좋은 도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공교육에서의 코딩 교육 강화를 통해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2022년 영유아 안전 축제 개최



남양주시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관내 어린이집 및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2022년 영유아 안전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영유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과 대처 방법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 존은 교통, 화재, 화재, 전기 및 가스, 수상 안전 등 9개 분야의 18개 프로그램 및 활동 공간이 이동식 체험 차량,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구성될 예정이며,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등 각 분야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이벤트 존에는 아동 학대 및 실종 예방, 식생활 안전 홍보를 위한 부스 등이 설치돼 방문 어린이집과 영유아 가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2년 남양주시 영유아 안전 축제'는 영유아 체험장의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오는 17일부터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어린이집 단체는 28일(금), 영유아 양육가정은 29일(토) 각 3회씩, 회당 400명씩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시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일상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어려서부터 습득하고 알맞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안전 축제를 준비하게 됐다"라며 "내실 있는 운영으로 영유아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추진

평택시는 올해 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급증과 최근 인근 천안 봉강천 야생 원앙에서 발생 등 우리시 유입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강력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행정과 인종 거점소독소 2개소를 운영하여 특별방역 기간 동안 가금농장 출입차량은 소독 의무화했다. 철새로부터 AI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에 출입금지 현수막과 안내문을 부착해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가금관련 축산차량은 행정명령을 통해 출입금지 조치했다. 또한 농장내 유입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방역차량 7대(살수차 2대, 방역차량 5대)를 매일 운행, 철새도래지 및 가금사육농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고위험 산란계농장 5개소에 선제적으로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조기 발견을 통한 확산방지를 위해 가금 정기검사, 출하전 검사 확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전 가금류 사육 농가(68개소)에 전담관을 지정해 주 1회 이상, 발생시는 매일 농가 방역사항 홍보, 발생상황 전파 및 현장 방역점검 등으로 농장단위별 차단방역 강화를 추진한다.

가평군, 청렴한 가평특별군 실천의지 보여

가평군은 지난 12일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콘서트'를 개최했다. 청렴콘서트는 공직자가 청렴에 대해 친근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문화공연 형식의 청렴교육 프로그램으로, 가평군수를 포함한 95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했다. 이날 콘서트는 청렴의 감성적 접근을 위한 '샌드아트 공연', 청렴과 이해충돌방지방 등을 온라인 퀴즈로 재미있게 설명한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강연' 그리고 청렴과 문화공연을 접목한 '아카펠라 공연'으로 진행됐다. 특히, 가평군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등 공직자단체의 임·직원도 청렴콘서트에 함께 참석했으며, 5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신규·승진 공직자를 필수로 참석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 생각된다"며,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군민들에게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4000명 달린 화천 DMZ 랠리 화천군 지역경제도 반짝 랠리

전국의 사이클 마니아 4,000여명, 화천 DMZ 랠리 코스 73km 질주

3년 만에 열린 화천 DMZ 랠리가 코로나19 이후 3년 간 침체됐던 지역경제의 '반짝 랠리'를 이끌었다.

2022 화천 DMZ 랠리가 지난 16일 총연장 73km에 달하는 화천 DMZ 코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올해 대회에는 국내 마스터즈 대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4,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출전했다.

참가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속속 출발지인 화천 생활체육공원으로 집결해 이내 드넓은 운동장을 가득 채웠다.

몸을 뽀 참가자들은 출발 그룹별로 운동장을 출발해 퍼레이드 구간을 거쳐 정소년수련관에서부터 본격적인 기록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북한강변을 질주한 참가자들은 순식간에 해산령을 정복하고, 평화의 댐을 경유해 한복령을 넘었다.

많은 인원이 참가했지만, 주최 측의 안전관리와 교통통제 덕분에 대회는 무사히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그간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지역경제에 단비가 됐다.

우선 참가자 4000명 전원에게 각각 화천에서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화천사랑상품권이 사전에 지급됐다.

이렇게 배부된 8000만원 상당의 화천사랑상품권은 당일 지역 음식점과 상가, 숙박업소, 주유소, 카페, 편의점 등에서 사용됐다.

아울러 5000여 명이 넘는 스태프와 자원봉사자

등 대회 관계자들을 위한 도시락과 간식, 각종 물품 구매 역시 지역에서 이뤄졌다.

일부 참가자들은 대회 개최 이전인 10월 초부터 코스답사를 위해 화천을 방문하기도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 DMZ 랠리가 전국 최고의 마스터즈 경쟁대회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기여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내실있게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 화천 DMZ 랠리 사전제 대회는 화천군 주최, 군체육회, 군자전거연맹, 위즈런 솔루션 주관, 국방부, 화천경찰서, 군자원봉사센터 후원으로 열렸다.

/정대휘 기자



정선군, 농촌일손부족 해소 영농봉사 적극 추진



정선군은 농산물 수확기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어려운 농촌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농촌일손돕기 장구를 구축하여 인력이 필요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10월부터 2개월간 영농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일손돕기는 자연재난 피해농가, 고령농,

여성농업인 등 어려운 농가를 우선지원하고 농촌 인력이 부족한 일반농가에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일손돕기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거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영농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농업기술센터로 문의

하면 된다.

군에서는 농촌의 부족한 인력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외국인 근로자 31농가 89명을 지원한 것은 물론 인력지원센터를 통하여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 등 40여 농가에 3,740명을 지원했으며, 34개 기관단체에서 428명이 참여하여 34농가에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군은 농촌일손돕기를 위해 600여 공직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기관·사회단체와 협업을 통해 더욱더 많은 봉사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 계절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등 2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7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농촌인력 구인 및 농가일선 등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정대휘 기자

횡성군 도서관, 2022 책 읽는 가족 시상

횡성군립도서관과 둔내대성도서관에서는 가족 독서 활성화 캠페인 사업으로 한국도서관협회와 횡성군수 공동명의로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는 '2022년 책 읽는 가족' 시상식을 지난 11일, 군수 집무실에서 개최했다.

2021년 다대출 가족화원으로 군립도서관 과대학 가족(6명), 박찬호 가족(5명), 둔내대성도서관 민복기 가족(4명) 등 37가족이 선정됐으며, 이들은 연간 300여권에서 600여권 책을 읽고 공공도서관을 활발히 이용하여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은 "매년 책 읽는 가족 시상식을 통해 독서를 권장하고, 관내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독서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독서 진흥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선아리랑, 경북 안동 우리소리축제 무대 올라

한국의 소리, 세계의 소리인 정선아리랑이 경상북도 안동에서 개최되는 우리소리 축제 무대에 오른다.

경상북도·안동시가 주최하고 국악로문화보존회·정육향판소리연구소가 주관하는 제7회 우리소리축제가 15일 안동 개목나루에서 열린다.

이번 우리소리 축제에는 정선아리랑을 비롯해 남도민요, 경기민요, 열두장고, 판소리, 퓨전, 각설

이, 진도북춤 등 다양한 전통소리 향연으로 진행된다.

정선아리랑 공연무대는 김형조 정선아리랑 예능보유자를 비롯해 전순녀·엄순복 정선아리랑 이수자, 유준희 정선아리랑 전수 장학생, 이창자 정선아리랑 전수생 등이 위엄 아리랑과 자진 아리랑 소리로 세계적인 정선아리랑 가락을 청중들에게 선사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북돋운다.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사랑애(愛) 집수리 봉사활동 펼쳐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2일 '사랑애(愛)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양평읍사무소 복지팀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고, 대한적십자사 양평지구협의회(이하 적십자, 회장 서동숙) 회원분들이 봉사활동을 펼치는 '민관협력 재능나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집수리 봉사는 도배와 장판 교체, 실내공간 정리정돈, 마무리 청소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봉사에 나선 적십자 회원들은 본격적인 집수리에 앞서 집 정리부터 시작했다. 봉사 대상 가구가 현관부터 화장실, 부엌, 방 등 어느 곳 하나 정리의 손길이 필요치 않은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악했던 주거공간도 적십자 회원들의 손을 거치며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나게 됐고 도배지를 바르고 장판을 교체하며 점차 집 내부가 개선되는 것을 느낀 회원들은 더욱 봉사활동에 박차를 가해 늦은 오후에 무사히 집수리 봉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

이현주 센터장은 "오늘 진행한 사랑 애 집수리 봉사는 적십자 등 다양한 봉사단체의 회원분들의 자발적 재능나눔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라며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수리 봉사로 관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휘 기자



평창군 민원담당공무원 교육



평창군은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오대산 일정사 성보박물관에서 '2022년 민원행정 감성서비스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공무원 및 민원담당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민원행정 처리 및 응대 예절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쌓는 계기를 마련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역량을 제고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민원토지과는 매년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균정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발전을 위한 맞춤형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윤수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민원행정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휘 기자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알리고 싶은 말이나 주장, 사진, 만화의 내용을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함께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우편이나 홈페이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편번호 : 40206 경북 울릉군 북면 울릉순환로 2814-3 울릉신문 편집국
☛홈페이지 : http://www.울릉신문.com
☛이메일 : jleesabu@naver.com

OPINION

울릉도 칼럼

울릉신문 복간에 부쳐



은재원
신라신문/발행인

울릉신문을 사랑해야 하는 까닭. 울릉신문 독자 여러분. '물(水)' 이야기로 울릉신문 복간을 축하드리고자 합니다. 무생물인 물이 특정 글자에 반응해 자신의 결정체를 바꾼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소리 없이 알려지고 있는 베스트셀러 '물은 답을 알고 있다'와 '물은 사랑을 원한다'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물에게 진리, 존경, 박애, 인류애, 깨끗

하다 등 밝고 긍정적인 단어를 보여줬더니 아름답고 투명한 결정체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왕따, 바보, 죽음, 미움, 더럽다 등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단어에는 일그러진 결정체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특히 물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보여준 단어는 사랑과 감사였다고 하는군요.

울릉지역의 변화와 발전과 소통을 원한다고요? 그렇다면 울릉군민의 과발마가 되기 위해 복간을 맞이한 울릉신문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거니와 군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애정이 울릉신문을 통해 울릉의 변화와 발전과 소통의 견인차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 이야기를 조금만 더해 볼까요? 흥미로운 것은 물에게 절망이란 단어를 보여줬을 때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모두들 일그러지고 탁한 결정체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과

달리 뜻밖에도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결정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도 희망은 있는 법이다"라고.

울릉지역의 현실에 실망했다고요? 미래에 대해 절망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마지막 희망의 근거마저 버리지는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울릉과 생사고락을 나누며 비전을 만들어 나갈 울릉신문을 통해 소통(疏通)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현실과 미래는 바뀔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보수의 색이 그 어느 곳 보다 강한 척박한 경주 땅에서 '진보의 목소리, 미래의 목소리'를 모태로 창간된 신라신문이 울릉신문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울릉신문의 복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발행인 편지

“할말을 할 줄 아는 신문이 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울릉신문을 애타게 기다려 주신 애독자님, 울릉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정대휘
울릉신문/발행인

울릉신문이 긴 새벽을 깨고 드디어 2022년 10월부터 새롭게 군민 여러분들께 새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그동안 울릉신문 복간을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겠다'는 깊은 사명감으로 흔들림 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울릉신문을 아껴주시는 군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애정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경영의 악화로 휴간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거쳐 지금까지 복간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울릉군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애정은 큰 희망이요, 무너질 수 없다는 필사의 각오를 더욱 되새기게 해 주었습니다.

시련이 뒤따르고 고통의 수렁이 깊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신문사의 시스템이 개선될수록 더욱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비열하게 살아남기 위해 참된 언론인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울릉신문 복간 0001호로 애독자님들의 애정에 보답하기 위해 비록 초라하고 작지만 알찬 신문, 강한 신문, 부족하지만 군민의 편에서 서서 해야 할말을 다하는 신문, 당당한 신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흔히 신문은 사회의 거울이며 방향타라고 합니다. 언론의 역할은 독자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올바른 사회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게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끈을 연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 복간을 준비하며 과연 우리가 군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언론의 역할을 다할지 반신반의 하며 고민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언론에 몸담으며 밤을 낮 삼아 송고한 기사가 과연 독자들에게 유익하게 전달은 됐는지 반성도 해 봅니다. 그리고 약자에게 언론의 권력을 휘두르지는 않았는지도 반문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감내하기 힘들었던 사건과 상황들 그리고 때로는 저를 비롯한 기자들을 힘들게 했던 순간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언론인으로서 무장된 사명감과 자존심이 저희들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앞으로 울릉신문은 마을의 어두운 곳과 그늘진 곳을 환하게 밝히는 햇불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부당한 공권력을 향해 할말을 할 줄 아는 신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문,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편협 되지 않은 시각으로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보고 그것을 사실대로 전달하는 매신저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어 울릉신문이 목표를 향해 순항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주의 시(詩)

포항 바다가 소리에 젖다

가연

맑은 날의 점잖은 바다는 언제나 그의 멧찍은 농담처럼 어색하고 식상하다
비가 바다의 손을 잡는 건지 바다가 비의 손잡지를 끼는 건지 모호한 날 파도가 밀려와 풍경을 채우고 다시 밀려갈 때는 윈드서핑에 매달린 남자의 붉은 힘줄을 닮은 빗줄기에는 두근거림이 있다
비인 바다는 사파리에서 봤던 사자와 코끼리 모래성이 바다생물 대신 주인처럼 모래사장을 차지하고 있다
잡음 섞인 스피커에서는 부자연스러운 동물들의 울음소리로 재운 비의 아웅다웅 특격거림과 돛자리같이 펼쳐놓은 미역 줄기들이 할 일 없이 비에 젖는다
영일대 지붕엔 눈물처럼 바다를 적시는 또 다른 비가 내린다

[시 감상]

포항을 상징하는 여러 이미지 중에는 해맞이 이미지를 들 수 있다. 그곳이 바로 영일대와 영일대 해수욕장이다. 맑은 날 찾는 바닷가는 그의 멧찍은 농담처럼 어색하고 식상하다. 하지만 비가 오는 바닷가라면 상황과 풍경이 다르다. 아릇한 감정이 살아나고 빗줄기(소리)에는 가슴을 울리는 두근거림이 있다.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이 모호한 정체는 바다를 적시는 비(소리), 모래성을 적시는 비(소리), 미역 줄기를 적시는 비(소리)가 아니라 시인 자신이 토해 내는 비(눈물, 흐느낌)가 아닐까. (시 해설: 최상문 시인)

영광상회 전국택배

태양건조오징어·반건조오징어/명이절임
부지깁이절임/자연산돌미역/참고비
삼나물·부지깁이·취나물/생산자직판

40227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49
Tel : 054) 791-3233
H-P : 010-9381-3288
E-mail : jsc6822@naver.com

대표 이소연

울릉도오징어, 명이절임, 부지깁이절임, 자연산돌미역, 삼나물 등 생산자 직판/ 010-9381-3288

※본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알리고 싶은 말이나 주장, 사진, 만화의 내용을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함께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우편이나 홈페이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40206 경북 울릉군 북면 울릉순환로 2814-3 울릉신문 편집국

☛홈페이지 : http://www.울릉신문.com

☛이메일 : jleesabu@naver.com

OPINION

독도 광장

自由言論의 진정한 의미와 현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가난의 시대를 겪으면서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통해 어느덧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건 오직 우리 국민들의 인내와 노력의 결실이라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의 초강대국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을 앞선다.

이는 바로 미국 정부가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애초부터 언론자유에 일체 관섭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이 어떤 이유로든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 준 덕분에 오늘날 초강대국 미국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과거 독재체제 아래 국민의 언론자유는 철저히 유린됐다.

그저 사치일 뿐이었다. 역대 과거 정부는 언론을 자신의 통제 아래 조정하려 온갖 권력을 행사



장원규 칼럼리스트

하러 했고 또 언론을 통제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그만큼 언론의 가치를 무시했던 것이다.

언론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오늘날 지식

과 정보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제약받지 않는 언론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언론이 아닐까 싶다.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며 공유하는 것만이 투명한 정보기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유언론의 정부와 공직자들의 무능과 부패를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건전한 비판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조망해 주기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언론이다. 국민들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또 진실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이처럼 국민들은 언론보도에 크게 의존하며 곧 언론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로 민주주의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게 한다.

서봉수의 아름다운 도전

정치 컨설턴트이자 비독 애호가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중, 정치인 김종인이 나에게 들어서도 저렇게 간재하게 활동하는 이유를 필자에게 말해 줬다. '은퇴를 있고 산다, 계속 공부한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세 가지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찾을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던 중 프로 기사 서봉수 이야기가 나왔다.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봉수가 젊은 정상급 프로 기사 5명과 '치수 고치기' 시합을 했다. 치수 고치기 규칙은 첫판은 대등하게 바둑을 두고, 연속으로 지면 선(先)을 잡고, 또 지면 두 점 접바둑을, 그 다음에도 지면 3점 접바둑을 두는 것이다. 서봉수는 추석을 맞아 말 그대로 세계 정상급 프로 기사들과 한 판씩 대국했다. 첫번째, 두번째 판은 서봉수가 졌

다. 세번째 판은 서봉수가 이겨서 두 점 접바둑에서 한 점 접바둑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이 쉽게도 네번째, 다섯번째 판에서 모두 지면서 석 점 접바둑이 되었다. 예상 외로 1승 4패를 하면서 치수 고치기 최종 결과는 석 점이 되었다. 일반



김경욱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인은 두 점에서 서봉수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나, 전문가들은 두 점 이상이라고 예상했으니 어떻게 보면 예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다. 옛날에 필자의 어머니는 외출할 때 옷을 잘 입으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람은 법복을 입으면 법관처럼 행동하고 거지 옷을 입으면 거지처럼 행동하게 된다고 하신 적이 있다. 나의 생각, 나의 옷이 내 행동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정치인 김종인 박사가 나의 이라도 활동하는 비결 세 가지 중 '젊은 사람들과 가까이 한다'는 것을 따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위가 아닌 업을 만들고 갈고 닦아야 한다. 그리고, 나이 들었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업을 통해 세대에 관계 없이 교류하면 된다. 오늘은 은퇴연구소장이 정치 컨설턴트를 만나 은퇴에 관한 컨설팅을 받은 셈이다.

사설

취임 100일 민선 8기 "몸풀기 끝났다"

지난 8일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장이 교체된 울릉군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느라 힘겨운 들었을 것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물리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던 시간을 주행하며 나름의 색을 찾고 그 위에서 영점 조준하느라 단내나게 된 남한권 울릉군수에게서 아직 초심의 생기가 돈다. 보장된 기한이 4년인 남 군수에게 100일은 몸풀기의 끝이자 또 다른 내일의 시작이라 의미 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들이 앞뒤 다투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전력투구할 목표점을 제시하며 의지를 굳추세우는 게 관례적 포맷이다.

남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군민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며 100일을 보냈다"며 "무사히 군정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신 군민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4년이 울릉 미래 100년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울릉에 사는 것이 자랑이요 행복임을 느낄 수 있도록 주어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비전은 파랗다. 민심이 잠울성이 많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취임 초 확실하게 존재를 각인할만한 '한 방'이 필요해서일 것이다. 처음과 끝이 맞닿느냐가 관건이나 의욕은 합격적이다.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새 울릉'으로 민선 8기 비전을 정한 남한권 호는 ▲군민이 주인인 열린 군정 ▲다함께 누리는 희망복지 ▲웃음꽃 피우는 지역경제 ▲새로운 가치의 농수산업 ▲매력이 넘치는 생태관광 등 5대 군정방침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취임 100일에 즈음해 벌써 아쉬움을 곱씹기는 한 일보다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을 분간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지금이 잠시 숨을 고를 시점인 것은 맞다.

군민과 소통은 하는지, 조직은 잘 간수하고 있는지, 큰 그릇에 경도돼 작은 그릇을 간과하지는 않는지 되짚을 타이밍 말이다. 시행착오 만회는 빠르면 빠른수록 이득이다.

팔으로 메주를 쥐도 내 편이 있고 뿔로 메주를 쥐도 네 편이 있는 군수 자리는 품평이 숙명이다.

일회일비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표로 심판받게 돼 있다. 손살같이 흐를 임기 끝자락에서 맞대면할 자신에게 돌아켜보건대 어지간히 소임을 다했다고 토닥일 수 있으면 최상이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귀 닫고 잘된 사람 못 봤다. 초심 잃지 않고 입에 쓴 약 달게 삼키는 무르익은 자세가 민심의 열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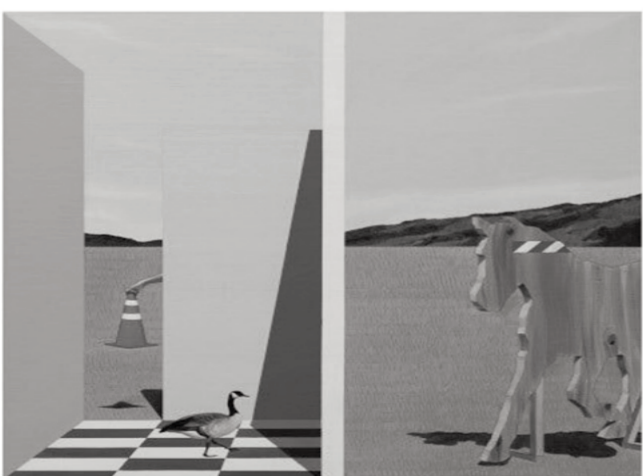
독서 산책 (1)

[문학] 거기에는 없다 | 서효인, 현대문학

PIN 011

거기에는 없다

서효인 시집



산문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이 시집의 모든 목차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신도시에서' '기숙사에서' '저수지에서'

'아파트에서' 처럼. 그리고 시집의 마지막에 서효인 시인은 '거기에서 만남'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덧붙였다.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만나거나 바라본 인물이기에. 그곳에서 본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을지 모른다. "고모나 삼촌이거나 모르는 아줌마거나 청년이거나 아무쪼록 그 무엇이거나 이름 붙일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작가의 일이란 바로 그런 인물을 잊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아닐까.

'교실에서' 라는 시를 읽으면 우리는 어떤 기억을 더듬어 가며 잊었던 마땅한 분노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심심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하면 "애들을 곤죽이 되게 때리던" 선생들이 떠올라서, '병원에서' 라는 시를 읽으면 눈물이 고일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의 기록이므로 게다가 '거기에서 만남'까지 읽는다면 우리도 자

신만의 이야기가 하고 싶어질지 모른다. 시인은 보여주고 있다. 삶에서 아이는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났으며 아버지가 시인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두 발로 딛고 선 죽음을 잊으려" 견디고 살아내려 하는 의지를.

그러나 이 시집은 감상적이지도 낭만적이지도 않다. 시인의 목소리는 체계적이며 이성적으로 들린다. 그 안에서 퍼지는 '이것은 사랑입니까?' 라는 울림은 그래서 더 뜨겁고 생생하다. 또한 "아직 죽지 않아 다행인 거의 모든 삶"에 대해서 쓰겠다는 시인의 뜨거운 마음. 어쩌서인가, 시인이 연젠가는 이 시집에서 채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소설로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금주의 울릉 주간날씨

10월 25일(화) ~ 9월 1일(화)

<p>25일 화</p> <p>최고 16℃ 최저 6℃</p>	<p>26일 수</p> <p>최고 20℃ 최저 5℃</p>	<p>27일 목</p> <p>최고 20℃ 최저 8℃</p>	<p>28일 금</p> <p>최고 20℃ 최저 8℃</p>
<p>29일 토</p> <p>최고 20℃ 최저 9℃</p>	<p>30일 일</p> <p>최고 18℃ 최저 10℃</p>	<p>31일 월</p> <p>최고 19℃ 최저 9℃</p>	<p>9월 1일 화</p> <p>최고 19℃ 최저 10℃</p>

울릉신문

발행인/대표이사 정대휘

인쇄 (주)주영테크

편집국장 김경학

경북 울릉군 북면 울릉순환로 2814-3

e-mail : jleesabu@naver.com

기사제보/광고 · 구독 1899-7484

구독료 : 월 6000원/년 6만원

등록번호 : 경북, 다 01502

납부계좌 : 농협 301-0029-7870-11 정대휘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울릉 365 PR

개업, 임대, 대리점 등 PR의 모든 것

이유 있는 선택 PR에 관한 모든 정보~
울릉신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U.P (주)울릉도여행사

이 노 동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28
Tel. 054-791-4708
Mobile. 010-4707-5696
E-mail. l8200281@naver.com

울릉도 영광상회 <전국택배>

태양건조오징어·반건조오징어/명이절임
부지갱이절임/자연산돌미역/참고비
삼나물·부지갱이·취나물/생산자직판

40227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49
대 표 이 소 연
Tel : 054) 791-3233
HP : 010-9381-3288
E-mail : jsc6822@naver.com

주소(D) www.울릉도여행사.com 이동

NAVER 검색상세 울릉가이드 총체보여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울릉신문/ 1899-7489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울릉신문/ 1899-7489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1899-7489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1899-7489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1899-7489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1899-7489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1899-7489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1899-7489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1899-7489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1899-7489

생활정보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1899-7489

울릉도 대표 여성기업

울릉도 며느리의 아심찬 프리미엄 상품



장아찌 3종 선물세트

명이나물 장아찌
눈개승마장아찌
섬엉겅퀴 장아찌

울릉도 약초를 맛있게 담겠습니다



울릉도 나물밥 만들기 3종세트

울릉도 산채 삼총사
부지갱이 & 엉겅퀴 & 미역취
밥지을때 함께넣고 취사하면 완성



15분 딱딱 나물 불리기 완성

산나물 먹고싶어도 불리기 힘들어 못
드시는분을 위한 선물
나물 볶음까지 25분이면 요리 끝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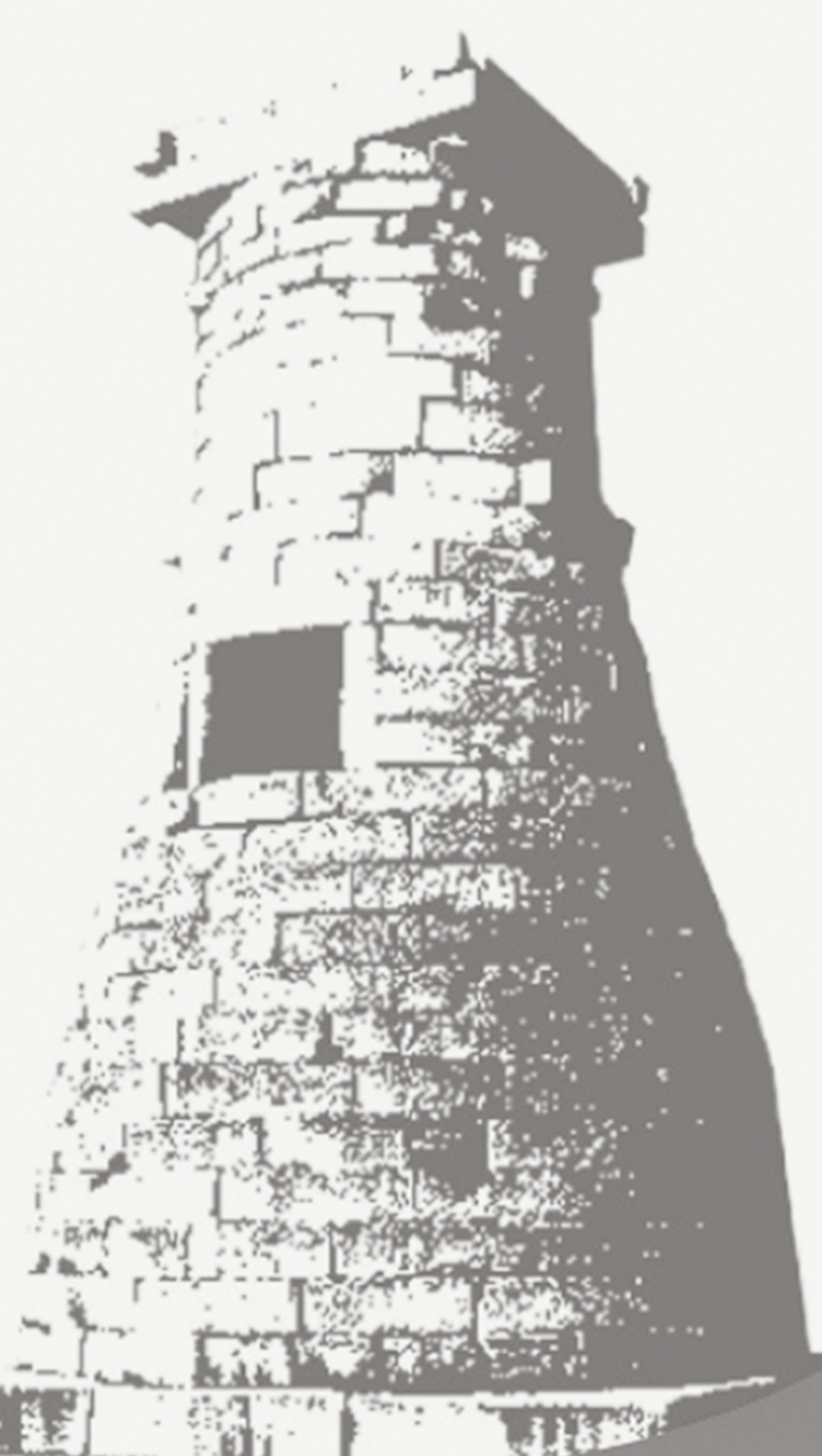
선덕여왕 첨성대에 행차하다!



6월~11월 매주 토·일요일
정오, 오후 2시

행차코스

경주향교 → 계림 → 첨성대 →
동궁과월지 입구 → 첨성대 →
대릉원 입구 → 첨성대(포토존) →
계림 → 경주향교



주최 / 주관  신라문화콘텐츠개발원
Silla Culture & Contents Development Institute

후원  경주시 GYEONGJU  경상북도 GYEONGBUK-DO  이상복명과

신라복식 · 금관만들기 체험

- 왕과 왕비, 장군, 귀족, 화랑, 병사 복식
- 장소 : 계림 분장사무실 앞 체험장

※ 유치원생 : 평일 단체 체험 20% 할인 (문의 : 010-7559-7391)

김해시,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여

세계 570여개 도시에 '글로벌 김해' 각인

김해시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대 전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된 '2022 대 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에 참여해 세계 각국 도시 대표단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은 국제 연합(UN)이 인정한 세계 최대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140여개국 24만여개 지방 정부와 지방정부연합이 회원으로 참여 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지난 6월 세계지 방정부연합 아시아 태평양지부에 가입 했다. 이번 총회는 147개국 576개 도시에 서 7,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여해 참여 인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김해시는 이번 총회가 김해시를 세계

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행사 장 '국내의 홍보관'에 부스를 설치해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대면 홍보활동을 했다.

김해시는 고대 무역국가였던 가야왕 국에 바탕한 김해시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 의생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첨단산업도시로서의 면모,

탄탄한 공공의료·복지를 완성해가는 생활환경 매력 등을 홍보했다.

또한 김해시 홍보관에 세계 각국의 시장, 부시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많이 방문해 김해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김수로왕과 허황옥 왕비의 러브스토리를 품은 김해시의 역사문화적 매력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흔희 김해시 자치행정과장은 "우리시를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번 총회가 대전에서 개최되어



세계 많은 도시에 우리시를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세계와 교류하는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 성주사 전통산사 문화제 찾아

성주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전통산사 음악제 참석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지난 15일 오후 창원 성주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2022년 전통산사문화제 본행사인 '전통산사 음악제'에 참석했다.

전통산사문화제는 지난 2020년부터 지역의 대표 사찰인 성주사의 문화유산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는 영산재 봉행을 시작

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불모루 특별 공연, 전통산사 음악제, 문화제 전시·체험과 유화, 서각 작품 전시회, 성주사 및 해의 불교 성지 사진전 등 산사 문화제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전통산사 음악제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김영선(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강기윤(국민의힘, 창원시성산구)·최형두(국민의힘, 창원시마산

합포구) 국회의원, 박남용 경남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도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진 성주사의 가을밤 정취를 한껏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음악제를 통해 불모산의 가을 정취와 선율을 즐기며 재충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전통산사 문화제가 전통문화와 향유와 함께 지역민들이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7년부터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전통산사문화제 활용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창원 성주사, 거제 신평사, 고성 옥천사, 남해 화방사 등 4개 사찰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예술의 숲 야외등불전' 개최

오는 11월18일까지 야외전시장 일원서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1월18일까지 30일간 예술의 숲 야외전시장 일원에서 '예술의 숲 야외등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미술협회와 울산시예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전국장애인 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는 오는 19일부터 개최되는 전국장애인 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희망하는 소망을 담은 한글, 한문, 문인화 등 서예 등불 작품 200점을 선보인다.

각 협회에서 활동 중인 서예 분야 200명의 작가들이 1인 4점씩의 서예 작품을 총 4면체의 1개 등불 작품으로 제작해 전시함으로써 지역 예술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서예 작품을 실내

전시장에서만 관람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야외 전시공간에서 진행된다.

밤낮 일교차와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장치 설치와 야간에도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고 낮에는 예술의 숲 자연 채광을 통한 작품 관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야간에는 예술의 숲 야외전시장 중앙의 대형 구조물에 설치된 엘이디(LED) 조명 등불을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문화예술회관은 이번 전시가 마음의 울림이 전해지는 감명 깊은 글귀부터 아름다운 색깔로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문인화까지 울산 서예술의 현시점을 되짚어보고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회관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작품을 관람하면서 목향 가득 담긴 서예작품과 등불을 가미한 색다른 볼거리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며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뒤돌아보며 내년에 더 희망과 기운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대휘 기자

경남도, "바다의 황금 어장 24시간 무인선박이 지킨다"

민선 8기, 전국 최초 양식장 감시용 무인선박 해상실증 성공

경상남도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경남조종면허시험장 및 안정항로 일원에서 양식장 감시용 무인선박 해상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무인선박의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 중인 국내 최초 스마트(무인)선박에 대한 실증구역이다.

기존에는 '모든 선박은 선원이 탑승해야 한다'는 '선박직원법' 제11조에 따라

무인선박의 테스트가 불가능했지만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받으면서 특구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선원이 탑승하지 않아도 무인선박의 테스트 수행을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내 해상에서 총 11회 실증을 통해 다중센서 장애물 인식시험, 유무인선 협력항해, 수동·자동 이접안, 해양정찰·해양조사 임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선원

이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인화 상태로 자율운항 테스트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실증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해양조사선(아라곤3호)에 양식장 감시선 기능을 탑재하여 양식장 주위 순찰, 침입 선박 탐지, 도주 선박 추적 등의 해상실증을 수행했다.

특히 아라곤3호는 야간 시야 확보와 추적이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 및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양식장 주변을 24시간 감시하고 무단침입 선박 발견 시 신속하게

해경에 신고하고 도주 선박을 추적하는 성능검증과 시나리오를 수행한다.

민선8기를 맞아 처음으로 시행한 이번 해상실증은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무인선박 해상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해상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완전 무인선박 상용화 모델을 전국 최초로 제시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경상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이번 실증은 실제 양식장 주변에서 도난 감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만큼 향후 해상시설 감시와 해상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규제자유특구 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개막

개막작 및 사회자, 본심 심사위원 공개



지난 20일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단성사에서 영화문화 축제의 문을 여는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가 개막작 및 경쟁 부문 본선 진출작을 심사할 본심 심사위원을 공개했다.

개막작은 단편영화 2편으로, 오대경 감독의 '유비쿼터스 19'와 김민혜 감독의 '그렇고 그런 사이'이다.

제사와 성묘를 모티브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각기 다른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유비쿼터스 19'는 랜데믹의 여파로 불거진 가족 간의 갈등을 유비쿼터스 세계에서 보듬고, '그렇고 그런 사이'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변화와 갈등을 현실감 넘치는 연출과 유머로 풀어낸 인상적인 작품이다.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는 본선에 오른 38편의 경쟁작을 심사할 본심 심사위원도 발표했다. 본심 심사위원은 총 3인으로 먼저 1988년 '개그맨'으로 데뷔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1999'로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큰 반향을 일으킨 이명세 감독과 현재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는 문석영 화평평가,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 2016', 전교운 감독의 '소공녀, 2018'이 중언 감독의 '생일, 2019' 등을 프로젝트인 김순모 피디가 함께 참여한다.

본심 심사위원들의 대상 등 본상 선정 외에 전국에서 지원하고 선발된 총 11인의 관객심사단이 경쟁작품 중 1편을 골라 관객상을 별도 선정, 시상한다.

20일 개막식의 사회자로는 영화 '파이란' 등 수십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준 손병호 배우가 단독 진행했다.

수려한영화제의 상영관인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단성사 및 대웅극장은 유료 상영으로 각 극장에서 티켓을 구입, 발권 받아 입장할 수 있고 합천읍에 위치한 작은 영화관 합천시네마는 무료 상영으로 좌석 지정을 위한 티켓을 발급받으면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다.

합천 수려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10월 20일 개막일로부터 24일까지 총 5일간 펼쳐질 영화문화축제가 전국의 영화인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대휘 기자

2022 경상도 안전체험박람회 개최

경상도가 '2022 경상도 안전체험박람회' 부대행사로 '어린이 안전문화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학생이며, 각 초등학교에서는 교내 우수작 3점을 선정(학교단위 참가)하여 접수기간 내 참가신청서와 출품작을 주관단체인 (사)경남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그림의 주제는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문화 확산' 이고 규격은 8월이며 형식과 재료에는 제한이 없다.

시상 규모는 최우수 2점(도지사상), 우수상 4점(교육감상, 도의회의장상), 장려상 4점(합천군수상, 합천군회의의장상) 등 총 20점이고, 입상작은 출품작 중에서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2022 경상남도 안전체험박람회' 행사시 시상 및 전시 예정이다.

경상도가 주최하고 (사)경남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이 주관하는 '2022 경상남도 안전체험박람회'는 도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11월 10일 개막식(오후 2시)을 시작으로 3일간 경상남도 안전체험관(합천군 소재)에서 개최하며, 그림그리기 대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개최되는 부대행사이다.

윤성해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이번 그림그리기 대회가 도내 어린이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초등학교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군,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최적지...유치 총력전

지리·생태·역사 등 모든 분야에서 강세



보성군이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유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은 전라남도 연안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며, 국비 124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전시관, 체험관, 연구시설, 교육관, 수장시설 등 연면적 2만2464㎡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

보성군은 남해안남중권과 득량만·강진만권, 광주·전남 남부중심권역으로 경상도와 광주 전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으로 연안 시군의 다양한 해양수산자원을 품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전선,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국에서 2시간 내에 진입이 가능해져 교통 접근성 또한 매우 좋다.

우수한 해양 생태자원도 대상지로 선정돼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보성별고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으며, 갯벌도립공원, 탐사르습지, 습지보호구역 등에 지정되어 수십년간 갯벌 보존 및 복원 사업을 진행해 고유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높은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보성군과 지역주민들의 유치 의지도 뜨겁다. 보성군은 지리적·학술적 장점을 바탕으로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TF팀을 발족해

대응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주도한 유치결의 대회가 열리기도 했으며, 협의회·지역단체·기관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이 보성군 유치를 지지하며 힘을 모으고 있다.

TF팀은 차별화된 콘셉트의 박물관 조성 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 논리 개발과 연구 용역 추진 등 업무를 하고 박물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회·지역단체·기관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수산자원 발굴·기부, 박물관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성군은 민선 7기부터 8기까지 '보성형 블루이코노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양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온 점도 눈에 띈다.

김철우 군수는 "보성군은 국립시설이 전무한 곳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들어와야하고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지리적 이점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서 "보성군이 제시한 건립 대상지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준비하며 군량미와 전선을 만들었던 곳으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학술연구와 교육에 기여하는 박물관 최적지인 만큼 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제8회 동편제마을 국악거리축제

국악계 최고 명인·명창들의 특별한 무대



2022 예술마을 프로젝트: 제8회 동편제마을 국악거리축제가 지난 15일 남원시 비전마을 송흥록 박초월 생가, 정자마루 일원에서 열렸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주관하며 전라북도과 남원시가 후원하는 동편제마을 국악거리축제는 201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8회차를 맞았다.

동편제 땃자리에서 시작되어 최정상급 명인·

명창들이 찾은 국악 축제로 자리매김한 '동편제마을 국악거리축제'는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2021년과 달리, 올해에는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이 시작되어 남원 비전마을 일대에서 관객들과 조우했다.

동편제 땃자리를 찾아온 명창들, '소리열전 슈퍼콘서트'

제8회 동편제 국악 축제의 하이라이트 '소리열

전 슈퍼콘서트'는 기왕 송흥록 박초월 생가에서 열렸다.

관소리 명창으로서 탁월한 전수 능력과 전수 활동으로 관소리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은 안숙선,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전승교육사 김영민,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이춘희,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부수석의 서진희가 출연했다.

공연은 서진희를 시작으로 각 명창들의 단독 공연으로 진행되며, 이후 모든 출연진이 무대에서 함께 노래 부르는 '소리열전 슈퍼콘서트'만의 대표적인 피날레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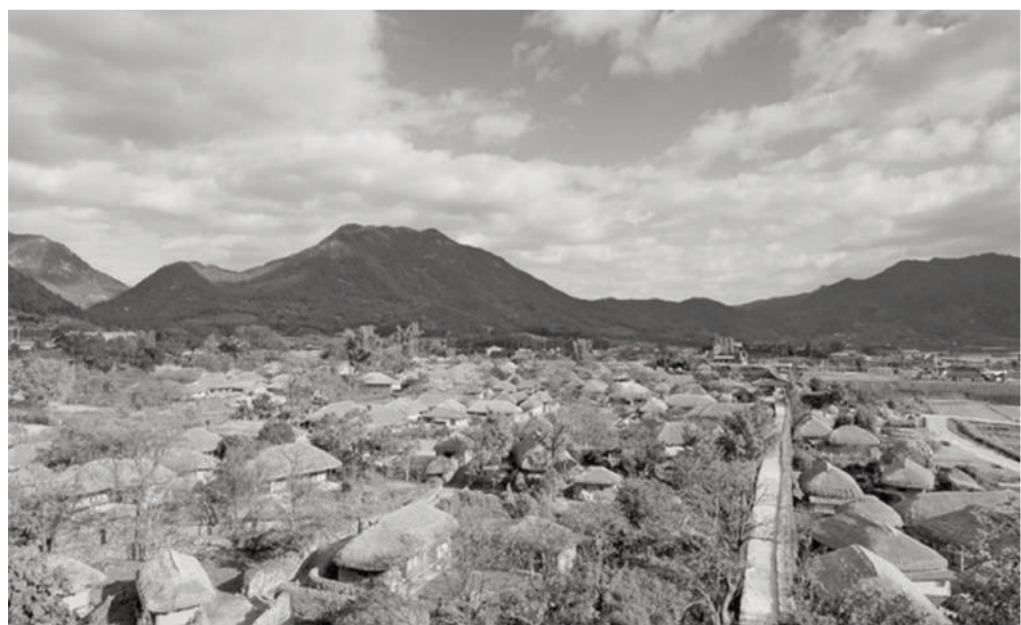
정자마루에서 만나는 월드뮤직 '정자마루 콘서트'

비전마을에 위치한 정자마루에는 월드뮤직그룹 김주홍과 노름마치, 딸(TAAL)이 찾아온다. '정자마루 콘서트'는 정자마루 위에서 열리는 공연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한가로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콘서트이다.

한국전통음악의 틀을 유지하며 동시대 사람들과 소통하는 음악을 지향하는 김주홍과 노름마치,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갖지 않는 지구의 음악을 들려주는 딸의 출연으로 정자마루 내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됐다.

순천시 낙안읍성, 제27회 민속문화축제 개최

'가을에 여기 어때? 조선낙원'이라는 주제로 열려



순천시는 '제27회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낙안읍성 일원에

서 열렸고 밝혔다. '가을에 여기 어때?' '조선낙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과거로의 시간 여행지로 각광 받는 낙안읍성이 안전하고 따뜻한 고향처럼 힐링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축제 콘텐츠로 채웠다.

축제 기간 동안 낙안읍성을 찾은 13만명의 관광객들에게 조선시대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전통혼례식, 김빈길 장군 부임 행렬, 백중놀이, 성곽쌓기, 수문장 교대식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관광객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 연계 행사로 진행되는 제7회 전통·향토음식 축제는 남도 음식의 진미를 선보이며 관광객의 미각을 만족시켰다.

순천시 관계자는 "3년 만에 다시 개최된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가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 전통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어린 세대에게는 대중이 어울리는 축제 본연의 즐거움을 다시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 "만경강으로 새로운 100년 연다"



완주군이 만경강 시대를 새롭게 열어 미래 100년 성장 동력을 구축한다. 지난 13일 완주군은 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주민보고회를 열고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는 유희태 완주군수의 제1핵심공약으로 그동안 전담 TF팀을 신설해 정책 로드맵을 구성해왔다.

주민보고회는 그동안의 결과물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로 큰 관심을 모았다.

각 읍면 이장협의회장, 부녀연합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 군수는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는 생태와 환경, 문화, 삶의 질은 물론이고 관광과 일자리, 4차 산업까지 모두 아우르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를 실현할 밑그림이다"고 천명했다.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는 '2천년 마한, 100년 완주를 흐르는 한반도의 만경강 미래시대 개막'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3가지 정책 목표, 11가지 중점과제가 추진된다.

정책목표는 첨단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생태도시 완주 건설', 관광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1천만 관광객 유치',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첨단산업과 정책혁신을 통해 완주 미래 100년 성장 동력을 속도감 있게 구축한다.

우선 스마트 생태도시 완주를 위해 만경강 유역 마한 역사문화 벨트를 조성하고, 만경강 수변 접근성과 교통인프라를 개선한다.

또한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역사문화 관광권,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체류형 관광객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 콘텐츠 개발, 고향 관광 활성화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 첨단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스마트 농공단지 조성 등이 추진된다.

특히 매년 5천개 이상 일자리 창출로 인기 내 2개 일자리 창출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가나다(가고 싶은 나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중소기업 단기 운영자금 지급보증, 대출이자 차액보전, 후생복지 개선 등을 지원하고, 테크노밸리 제2산단·농공단지 조기분양, 사회경제적 조직 발굴, 직접 일자리 사업, 취업연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유 군수는 "많은 기대와 지지를 보내줬던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취임 100일과 함께 소개할 수 있게 됐다"며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는 완주군 미래 100년의 청사진으로 한반도의 만경강 미래 시대 개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태안군, 옥파 이종일 생가지서 국화축제 개최

오는 28일부터 11월6일까지 '제10회 꽃과 바다 태안 국화축제'

충남 태안군에서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국화 축제가 열린다. 군은 오는 28일부터 11월6일까지 10일간 원북면 반계리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에서 '제10회 꽃과 바다 태안 국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을의 태안을 상징하는 이번 국화축제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돼 군민 및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으며, 그동안 단위 행사로 진행되던 지난해부터 군 주관 행사로 전환돼 올해 더욱 풍성한 행사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원북으로의 초대'라는 부제 아래 태안8경, 독립문, 주꾸미, 꽃담, 대형 하트, 한반도 지도, 각종 동물 등 국화로 만들어진 다양한 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또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일일이자 1898년 순한글 일간지 '제국신문'을 창간한 독립운동가 이종일 선생의 생가지를 둘러보는 역사교육의 장으로도 의미가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에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축제장 내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을 운영하고 목공·도공·서예·천연염색·전통놀이 등 특색 있는 체험부스를 마련해 관광객들에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태안 국화축제에 방문하시면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역사와 문화, 그리고 힐링이 어우러진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실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국화축제를 군 대표 가을축제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태안 국화축제에 방문하시면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역사와 문화, 그리고 힐링이 어우러진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실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국화축제를 군 대표 가을축제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휘 기자



충남시장군수협, 청양군에 수해복구 성금 기탁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14일 청양군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써 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맡겼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수해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라며 "도움을 주신 시장·군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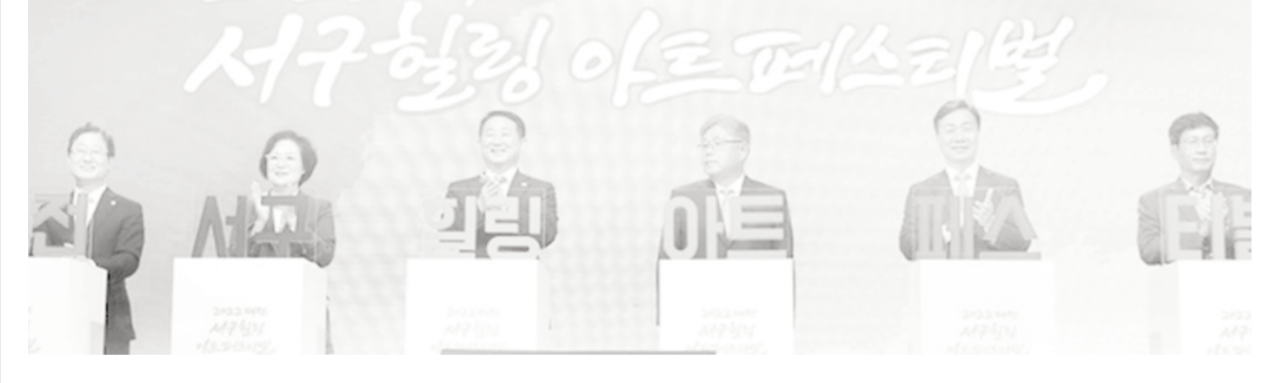
2022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16일 성황리에 폐막

3일간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선보여.. 호평 속 성료

지난 14일부터 구정 앞 샘머리 및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2022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이 1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세계 속의 대전 서구, 희망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축제는 도심 속 공원에서 펼쳐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기러 온 인파로 가득했다. 16일 저녁 서철모 서구청장과 강도목 축제추진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관람객과 함께한 폐막식은 3일간의 축제 하이라이트 영상 관람을 시작으로 라디오와 팜페라 공연팀의 폐막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하며 늦은 저녁까지 열광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 축제는 대표 프로그램인 아트마켓, 아트빛터널, 사생대회 등을 필두로 세계문화공연, 외국인 K-POP 경연대회, 힙합 스트릿댄스 콘서트 등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며 여느 때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며 성황을 이뤘다. 특히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아트빛터널은 화려한 조형물과 아름다운 빛 장식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회화, 공예, 일러스트레이션, 디지털 페인팅 등 더욱 다양한 분야

로 구성된 아트마켓은 평소 만나볼 수 없었던 전국 각지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여 축제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더했으며, 다양한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과 먹거리는 축제장을 찾은 이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서구의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을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축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2022 초록마을사업 마을별 추진상황 현장평가

참여마을 40개소에 대한 사업추진 점검

청주시가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2 초록마을사업 마을별 추진상황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주시가 후원하고 청주국제에코컴플렉스와 초록마을사업추진위원회가 공동 추진하는 '2022 초록마을사업' 초록마을사업은 지난 4월 초록마을 40개소와 협약 이후 마을별로 추진기구를 만들어 자율실천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초록마을사업추진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위원 10명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해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0개의 참여마을(초록도

시마을 25개소, 초록농촌마을 15개소)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의 홍보, 추진동력, 마을환경 정결도, 실천 활동 등의 항목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서면평가 점수와 합산해 추후 초록우수마을 심사에 반영한다. 초록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한 단계 상승(씨앗마을→나무마을, 나무마을→숲마을)해 내년도 사업에 참여할 경우 마을 활동비가 증액된다. 초록우수마을은 오는 12월에 10개소를 선정해 시상하고 초록마을 활동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서 공유할 계획이



/정대휘 기자

증평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기간 운영

증평군이 민선6기 새로운 미래 증평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 12월 자동차세 1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515건을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은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 팀을 구성, 관내 전역에서 12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

이다. 자동차세 체납 1회~2회 차량은 영치 예고서를 발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 문자·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증평군 지방세 체납액은 9월 말 기준 23억 2700만원으로 그중 자동차세가 3억 5200만원으로 약 15%를 차지한다.

군 관계자는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안내하여 탄력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3생활권이 하나되는 '하나데이' 개최

축제행사·전문예술 공연 즐기는 풍성한 가을

증평군이 민선6기 새로운 미래 증평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 12월 자동차세 1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515건을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은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 팀을 구성, 관내 전역에서 12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

이다. 예고서를 발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 문자·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증평군 지방세 체납액은 9월 말 기준 23억 2700만원으로 그중 자동차세가 3억 5200만원으로 약 15%를 차지한다. 군은 12월 자동차세 약 4억 2000만원을 부과하면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정리 기간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안내하여 탄력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 2022. 충북 수업 나눔 축제 개최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충청북도교육청은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2 충북 수업 나눔 축제를 개최한다. 2022 충북 수업 나눔 축제는 '지속가능한 미래수업, 함께 그리다'라는 주제로 수업에 대해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다. 이번 축제는 전시, 강연, 수업 나눔, 교사연구회의 현장 연구 사례와 개발자료 공유 등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학교 급별로 운영된다. 충북교육청은 축제 기간에 교육청 누리집 메인화면을 수업 나눔 축제로 전환해 축제 참여 접근성을 높였으며 현장

연구사례와 수업 나눔 자료를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연구회별 운영 결과 공유 △연수·수업 사례 나눔 △교과별 교육활동 체험 부스 등이 운영돼 미래 수업에 한 걸음 더 나아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유아 수업 나눔 축제는 도내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유아교육과 수업혁신을 위한 초청 강연, 수업 실천 사례 등 권역별 현장 중심의 사례 공유로 실시될 예정이다. 초등 수업 나눔 축제는 교원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형 수업으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의미 있는 행사들이 마련됐다.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주제 강연과 학교별 수업 나눔 축제, 7개 교

육지원청별 지역 수업 나눔 축제와 교육연구회별 연구 성과 공유 자리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등 수업 나눔 축제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별 수업과 평가 방법 우수사례, 교과연구회별 현장 중심의 사례가 공유된다. 중등 수업 나눔 축제에는 국어, 사회 등 17개 교과(영역)에 26개의 교육연구회가 함께 참여해 온·오프라인 수업 나눔, 전시, 강연, 토론 등 풍성한 축제의 장으로 운영된다. 특수교육 나눔 축제에는 수업과 더불어 교사들이 연구 활동과 학급운영 사례를 마음껏 이야기 나누며 다양한 성장과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용기 있는 선생님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은 우수사례 공유를 넘어 수업을 고민하고 실패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으로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미래형 수업에 대한 고민에 동참해주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감과 동행의 자리인 이번 수업 나눔 축제가 자발적인 수업 연구와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발돋움이자 교원의 성장을 이끄는 지속가능한 교육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빛나는 제주, 하나로 잇다’ 2022 세계유산축전 폐막

지난 15일 성산일출봉서 기념식 ... 도민·관광객 등 1000여 명 참여 ‘성황’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022 세계유산 축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여정을 마치는 기념식이 15일 오후 7시 성산일출봉 일대에서 개최됐다.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자연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세계유산을 무대로 각종 전통공연, 체험·재연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제주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2022년까지 3년 연속 세계유산축전 개최지로 선정됐

다.

이날 기념식은 이번 축전의 주제인 ‘Connect: 연결의 의미를 담아 빛나는 제주, 하나로 잇다(Shining Jeju, Connect as One)’라는 슬로건 아래 제주 자연의 가치와 의미를 기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1장 ‘빛을 향한 움직임’ △2장 ‘빛을 찾아가는 여정’ △3장 ‘세계자연유산 빛으로 물들다’ △4장 ‘빛놀이 하자’ △5장 ‘빛의 귀환’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된 공연, 영상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졌다.

기념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은



전 문화재청장, 최영창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이일형 세계자연유산마을 보존회장을 비롯해 도민, 관광객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오영훈 지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제주를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온 선조의 지혜가 면면히 이어지는 역사문화의 장소”라며 “제주 자연유산의

가치만큼이나 함께 살아가는 제주인의 삶도 빛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70만 제주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나도록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은전 문화재청장은 “세계 속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보고인 제주에서 16일간의 세계유산축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매우 기쁘다”며 “자연유산을 소재로 열리는 유일한 축제인 제주 세계유산축전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단과 세계자연유산마을보존회가 주관한 ‘2022 세계유산축전’은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성산일출봉, 한라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거문오름, 만장굴 등), 세계자연유산마을 일대에서 열렸다.

올해 세계자연유산 워킹투어 불의 숲길, 만장굴 아트 프로젝트, 자연유산마을을 찾아서, 세계자연유산 특별탐험대, 세계자연유산 순례단, 세계자연유산 만장굴 전 구간 탐험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제주자치도의회, 12대 4·3 특별위원회, 첫 주요 업무보고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4·3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실국 및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12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로, 집행부 및 관련 기관이 추진하는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4·3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차질없는 보상절차 추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4·3수형인 명예회복 등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4·3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 4·3의 전국화·세계화 등 4·3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도정운영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12대 4·3특별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4·3유족으로 구성된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어 폭넓은 자료를 요청하는 등 첫 업무보고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조상범 국장과 4·3지원과 강민철 과장,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과 김이택 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상진 과장이 참석한다.

한권 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앞두고 “제주4·3의 정의로움 해결을 위해 4·3특별위원회와 관련 실국 및 기관의 책임과 노력,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4·3의 미진한 과제를 풀고 새로운 의제에 대응하는 모든 여정에 한 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의회,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항국 부의장(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당1·2동 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압박예고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항국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교육사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계승·발전시켜 제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안 제3조), 기념사업 추진(안 제4조), 기념사업 지원(안 제5조) 등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또한 김항국 부의장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들이 전통문화와 함께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념사업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 학생과 동문에게 학교전통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조례 제정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어 학교마다 특색 있는 전통이 학생들에게 전승되어 제주교육을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조례는 김항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창식·오승식·정이운·이남근·현기중·송영훈·한동수·고의숙·양홍식·현지홍·박호형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제주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상향

제주시는 여성가족부 고시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2%에서 58%,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60%이하 월 35만원, 60%초과 65%이하 월 25만원 지원된다.

또한 9월말까지 한부모가족은 3,123명, 53억8천9백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37명, 5천2백만원이 지급됐으며, 정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정은 “소득기준 상향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더러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시 연제든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한부모가족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52%이하 월 20만원, 52%초과 58%이하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60%이하 월 35만원, 60%초과 65%이하 월 25만원 지원된다.

또한 9월말까지 한부모가족은 3,123명, 53억8천9백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37명, 5천2백만원이 지급됐으며, 정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정은 “소득기준 상향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더러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시 연제든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한부모가족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사무관 승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집무실에서 사무관 승진 의결자에 대한 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무관 승진자 임용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3일자로 제주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정에게 부여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사무관 승진임용 인사로서 8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총무담당관 경리팀장 고광수 사무관이 승진 의결된 후 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6주간 진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교육(5급 승진리더 과정)을 수료해 이날 승진 임용장을 수여했다.

김경하 의장은 “제주도의회에서 첫 자체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의회사무처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대휘 기자

제주시교육청, 제주-광주 간 ‘빛탐인 클래스’ 운영



제주시교육지원청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이번 달부터 시작하여 오는 12월까지 제주 4·3평화·인권교육과 5·18민주화운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주시와 광주광역시 간 지역교류 학습프로그램 ‘빛탐인(비타민) 클래스’를 운영한다.

양 교육지원청은 각 지역 관내 초등학교의 상호교류 학습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학급 결연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총 28학급(제주시 14학급, 광주광역시 14학급)이 결연을 맺고 온라인 교류 활동을 준비 중이다.

지역교류 학습 운영을 위한 사전설명회는 10월 11일 오후 3시 결연학급 담임교사와 지원청 업무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온라인으로 열렸다. 사전 설명회를 통해 교사들은 지역교류 학습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결연 학년과 방식에 따른 교류 학습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평화·인권교육 교류학습뿐만 아니라 지역 특색 및 학급 특색을 교류하는 운영 방

법이 제안되어 다채롭고 풍부한 교류 학습이 기대되고 있다.

제주시-광주광역시 간 지역교류의 첫 단추로 ‘평화·인권 사람책 수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류 학습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달 19일에는 황요범(제주4·3평화연구소 회장)이 제주 4·3 이야기, 28일에는 백성동(광주극락초 교사)이 5·18 민주화운동을, 내달 3일에는 신병서(광주남평초 교사)이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사전설명회에 참여한 결연학급의 박경득 동광초 교사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품고 서로의 지역에 대해 알아가며 더 넓고 깊은 눈을 갖기를 기대한다”며 “교류학습은 학생 중심 민주·평화·인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의 기반을 다져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2 서귀포칠십리축제 성황리에 폐막

다채로운 프로그램 행사장 흥겨움으로 들쭉

‘서귀포 칠십리, 새로운 희망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지난 14일 막을 올린 제28회 서귀포칠십리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16일 폐막했다.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칠십리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양광순)가 주관한 이번 축제에서 첫 날 열린 ‘칠십리 페어데이’에서 최우수상은 표선면이 차지했다.

축제 개막식에는 장흥군, 안성시, 이천시, 의왕시 등 서귀포시 교류도시와 및 도민, 관광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식전행사, 페어데이 시상, 불꽃쇼, 축하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둘째, 셋째 날에는 지역 공연예술 및 동아리 단체 등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난장’을 비롯한 ‘제

주어 고틀락’, ‘칠십리 웰니스 시간여행’, ‘칠십리 가요제’ 등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밖에 서귀포만의 특색있는 웰니스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서귀포 웰니스 홍보관’과 ‘서귀포 칠십리극장(3분 관광영화제 수상작 상영)’ 및 문화도시, 기능기존, 목재문화 등의 홍보관과 각종 체험·판매관도 운영돼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양광순 축제조직위원장은 “일상 회복에 발맞춰 3년만에 현장 대면 행사로 준비한 칠십리축제가 참가한 분들에게 희망차고 흥겨운 시간이 될기를 바란다”며 “축제 기간 교통통제 등 여러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해준 지역주민 등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경북도, 4년 만에 행안위 국정감사 수감

이철우 지사,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더 빛나는 '대전환의 역사'로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군위편입, 공공의료원 문제 등 현안 질의 연속 공공의료원 성공모델, 500만 규모의 경제권 등 지방시대 비전 제시

경북도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행정안전위원회 감사2반이 진행했으며 국민의힘 이만희(영천)반장을 포함한 11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만희·정우택·김용판·조은희 의원이, 민주당은 김교홍·이성만·임호산·조용환·이형석·최기상 의원이 참석했으며 기본소득당의 윤희인 의원도 참석했다.

이날 감사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의 원인과 복구상황, 주민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또 경북도에 밀집한 원자력 정책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그리고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조은희 의원의 경북의 변화와 메타버스 정책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태풍 힌남노 피해 관련해서는 이성만 의원이 재난지원금 수도권에 비해 적은 이유에 대해, 김교홍 의원은 병천 치수사업 관련된 경북도의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경직된 의연금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과 정부가 경북에 추가지원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통합신공항과 관련된 군위편입 문제에 대한 여러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고 이철우 도지사는 "공공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역사로 팔을 하나 때 주는 아픔이지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행정안전위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북지 관련된 질의들도 이어졌다. 정우택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최기상 의원은 경상북도의 공공의료원 위탁운영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비수도권은 의료진을 구하기 어렵다"며 "공공의료원을 경북대병원과 함께 운영해 지방의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소방과 관련해서는 김용판 의원은 소방청사 사고지 유해가스 배출장비 설치 문제를 이형석 의원은 원전 관할 소방사



의 방시능보호복의 내구연한 초과를 지적했다.

또 복지시설과 직장 내 갑질 등에 대한 질의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현장에 가 보고 직원들을 만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만희 감사반장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농업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했으며 이철우 도지사는 규모화를 이룩한 네덜란드 농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주를 주주로 만드는 경상북도의

농업대전환 프로젝트에 관심을 부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70여년 간 국민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기적의 역사이다"라면서 "지방시대를 열어 기적의 역사를 더욱 빛나는 내일로 이어가는 대전환의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휘 기자

경북도,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오는 12월19일까지 2개월간 일제정리 상습체납자 강력 징수...생계형 맞춤 징수

경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0일 부터 오는 12월19일까지 2개월간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지난 9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은 1196억원으로 연말까지 427억원 이상을 정리해 올해 체납액 정리목표를 달성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모든 체납자에 대해 확인화된 체납처분이나 고액 체납자와 소액체납자, 납세태만과 담세력 부족 체납자로 분류해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체납세액 고지서 일괄 발송을 시작으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처분과 인·허가 등 각종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등 고강도의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가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3개월 70여명으로 구성된 관외지역 체납세 합동징수팀도 운영해 현장 위주 실태 조사와 추적 징수를 펼친다.

또 다음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을 '체납차량 번호판 경북 일제 영치 기간'으로 정해 자동차세 체납액도 집중 징수한다.

이는 체납자의 주소를 빅데이터로 제작한 체납차량 번호판 지도와 번호판 영상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영치활동을 추진하며 영치대상은 도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전국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아울러 경북 최초로 전국 부동산 거래 신고 현황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입주권도 체납처분 한다.

다만 납부하지 않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행정제재 유보를 통해 경제활동 복구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휴폐이자와 전광판, 케이블 방송, 반상회보, 현수막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적극 홍보해 체납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다만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체납처분과 적극적 행정제재를 통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자치경찰위, '첫 종합감사' 마무리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청도경찰서를 끝으로 총 12개 경찰서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분야)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경북자치경찰위원회의 첫 종합감사로 도내 24개 경찰서 중 12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일선 경찰서의 부담을 줄이고 중북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북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회는 경북형 자치경찰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지도와 더불어 컨설팅을 진행해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올해 미수감 경찰서에도 감사 결과를 전파해 일선 경찰관들의 자치경찰 업무추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정대휘 기자

K-종가문화 세계 속으로 '2022 종가포럼'

경북도는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중섭)과 함께 지난 20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2022 종가포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종가포럼은 '지역 종가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종가문화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2020년도 코로나 확산으로 개최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올해 14회째를 맞았다.

'K-종가문화, 세계속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종가포럼은 도내 종손·종부는 물론 유림단체, 학계 등 30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세계 속 한국 종가문화의 가치를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종가포럼은 지난해부터 종가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세계 속의 한국 종가문화의 독창성과 가치를 그리고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종가문

화도 비교하며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전통문화를 지키기에는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종가문화와 가치를 변변히 지켜온 종손·종부님들께 진심

으로 감사드린다"며 "종가문화의 가치와 정신을 발굴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찾아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한발 더 내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한 번에!

지원 대상

I 유형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II 유형

- 18~34세 및 특정계층 소득 무관, 재산 무관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I 유형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 II 유형 최대 195만 4천원 취업활동비용

문의

고용센터 (국번없이) ☎ 1350

<https://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센터

이철우 도지사, 경북 보석 같은 스토리 세계무대로

K-컬처 이끄는 창작자들의 축제 성료 신한류 성공스토리 쓸 플랫폼 구축 글로벌 스토리텔러들의 향연 펼쳐져

경북도는 지난 20일 안동 전통리조트 구름에 일대에서 지역 최초로 '글로벌 K-스토리 프리 페스티벌(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전 세계가 K-콘텐츠에 열광하고 있는 이 시대에 경북을 스토리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김형동 국회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원, 김대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 이상학 안동부 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작가를 비롯해 '뽀로로'의 최종일 대표, '그해 우리는'의 이나은 작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윤용필 ENA채널 대표 등 콘텐츠산업을 이끌고 있는 리더급 인사들이 함께했다.

이날 개최식은 식전공연과 주요 내외빈 인사말, 제2회 영상콘텐츠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영상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에서 경산을 배경으로 '사또 오홍목'이란 작품을 출

품한 고도원씨가 대상(경북도지사)을 차지했다.

'사또 오홍목'이란 작품은 경산자인 현감을 지낸 실존인물 사또 오홍목의 캐릭터와 조선시대 김소사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이야기로 심사에서 완성도와 영상화 가능성 등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또 차민철씨는 경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명 '도필'로, 이경임씨는 영천 치산계곡을 배경으로 작품명 '청개구리 심보'로 각각 최우수상(경북도지사)과 우수상(콘텐츠진흥원장)을 각각 수상했다.

개회식은 시상에 이어 기념촬영과 주요 내외빈의 전시관 관람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어 본행사인 K-작가 토크쇼, 축하공연, 북 콘서트 '그해 우리는', K-스토리 컨퍼런스, 스토리 비즈매칭데이, 기성작가-예비작가 만남 등이 진행됐다.

먼저 'K-이야기꾼,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정서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크쇼에서는 독립영화계에서 뜨'의 김초희 영화감독의 영화제작 이야기

가 진행됐다.

또 대표 한류 애니메이션 '뽀로로', '꼬마버스타요'를 제작한 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의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토크 형태로 담았다.

이어 북콘서트에서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월화드라마 1위를 차지했던 모든 세대가 첫사랑의 기억을 공유한 드라마 '그해 우리는' 이나은 작가가 창작 과정에 담은 이야기도 들려줬다.

기성작가-예비작가와와의 만남에서는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대상을 수상한 허재호(구시)와 '신진스토리작가 지원 육성사업' 선정작가 조아라(범인들)의 인연소가 참여해 예비 작가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스토리 피칭데이, 스토리IP 일대일 상담회에서는 지난 20년간 개최해 온 '경북 영상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 수상작가들의 우수 작품을 제작사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산업화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제작사로는 문앤썬엔터테인먼트 최용기 대표, 카카오펀터테인먼트 노블사업부 전대진 부장, 기억속의 매미 박미정 총괄프로듀서, 블라드 스튜디오 오정환 프로듀서 등이 참여했다.

향후에도 지속해서 네트워크를 구축

해 창작자들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예정이다.

끝으로 K-스토리 컨퍼런스는 KBS 김인규 전 사장의 '한류 성공비밀과 드라마 발전 전략'이라는 특별강연으로 시작했다. 또 방송학회 소속 정윤식 교수(강원대)의 '글로벌 OTT 트렌드와 드라마 미래', 김공숙 교수(안동대)의 '경북 콘텐츠 드라마 극본 방안'을 주제로 세션이 이어졌다.

안동MBC 사생결담으로 진행된 '경북 스토리 세계화 전략' 포럼에서는 패널들 간 열린 토론을 벌이며 컨퍼런스는 마무리됐다.

이외에도 백미경 작가의 작품 대본집 (뽀유있는 그녀, 마인 등)과 공모전 수상 작품의 영상을 담은 전시전을 관람하고 한류 드라마·영화 OST 공연을 즐기는 등 본 축제를 통해 K-컬처를 향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구촌 시대에 콘텐츠 하나만 잘 만들어도 성공할 수 있다"며 "이번 K-스토리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경북에서 캐넌 보석 같은 스토리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무대에서 빛이 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대휘 기자

의사과학자 양성 위해 지역병원도 팔 걷어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1경3842조원 조선·반도체·자동차 규모 합한 3.4배 규모



경북도는 지난 20일 포스텍 국제관 중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의사과학자 양성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지고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포항지역 6개 병원장과 의대 설립 추진위원을 비롯한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민국 의사과학자 양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기관이 상호협력해 나간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협약내용으로는 ▷의대 및 병원 설립의 행정사항 지원(경북도·포항시) ▷바이오헬스산업 원천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포스텍) ▷인력교류, 의료·의과학·의공학 분야 공동연구, 임상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포항지역 6개 병원) 등을 담고 있다.

전 세계 바이오헬스산업 시장은 1경3842조원(2020년)에 이르고 향후 1경9722조원(2026년)에 이를 정도로 폭발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도 114조원(2020)으로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헬스산업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연구에 도입해 새로운 기술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며 과학·공학과 의학을 모두 경험하고 이해하는 의사과학자가 핵심인재이다.

경북도는 포항시와 포스텍이 가진 백신·신약개발 핵심 장비인 방사광가속기, 극저온 현미경을 보유한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등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부터 기술상용화까지 전주기적인 산업화 인프라

를 바탕으로 산업의사(의사과학자)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세계 최초 과학기반 일리노이대 커리큘럼을 도입해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MD-PhD 8년 복합학위 과정(2+4+2)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기존 임상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다.

또 산업의사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 의대 설립과 동시에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한 스마트병원(500병상), 의과학융합연구센터 건립을 민간 기업 투자를 통해 유치하는 등 추진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텍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산업의사가 연구환경을 기반으로 첨단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재생의학·신약개발·예측의학 등 공학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포스텍과 6개 병원이 공동 연구해 산업화로 이어지는 협력체계 구축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경북도는 향후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산업의사 양성에 대한 의료계 인식 공유 및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자본 유치와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협력 유치와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포스텍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산업은 대전환을 맞고 있고 반도체·휴대폰·자동차를 대신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므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인재가 중심이 돼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대휘 기자

제4회 예천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성료

경상북도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신도시 야외 특설무대에서 '제4회 예천국제 스마트폰 영화제'를 개최했다.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는 스마트폰으로 제작한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영화제이다.

국적, 성별, 나이, 장르 등에 제한 없이 국내외 누구나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올해 영화제에는 총 700여편의 작품이 지원됐다.

각 부문별 대상은 일반부 박준우 감독의 'Once upon a time in 2020', 학생부 김재은 감독의 '심해: 감정보고서', 시니어부 조상아 감독의 '공원벤치 하루 거처가는 사람들', 예천은어어부 이지형 감독의 '예천효자 도시복'이 각각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울진 왕피천에서 어미연어 첫 포획

경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지난 20일 먼 길을 돌아 고향인 울진 왕피천에 도착한 어미연어 7마리(수컷 4, 암컷 3)를 포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첫 포획된 어미연어는 수컷 4마리, 암컷 3마리로 몸길이 평균 68.8cm, 체중 평균 3.3kg 크기로 3~4년 전 울진 왕피천에 방류한 몸길이 5~7cm의 어린

연어가 북태평양과 베링해까지 약 2만 km를 회유해 성장한 뒤 고향인 왕피천으로 돌아온 것이다.

연어는 WHO가 발표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유일한 동물성 식품으로서 최근 글로벌 시장과 식문화가 주도하고 있다.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연결의 힘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력"
도민과 경상북도의회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울릉군민의 날 및 제53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울릉군은 25일 서면 태하리 울릉군종합운동장에서 울릉군민의 날 및 제53회 울릉군민체육대회 경축행사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행사 개식선언 및 성화 점화부터 초대 가수 공연과 군민체전 종목별 체육행사 및 폐막식까지 다양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2년만의 공백을 깨고 개최되는 군민체육대회는 지난 주말부터 각 종목별 사전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10월15일, 16일에는 축구경기가 진행됐고 20일은 배구, 21일은 배드민턴이 진행됐다.

22일에는 저동 무릉정에서 궁도, 저동 바둑기원에서 바둑, 남양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천부 국민체육센터에서 탁구,

24일 현포 게이트볼장에서 게이트볼, 라페루즈에서 그라운드골프(시범경기)



가 각각 진행됐다. 25일에는 육상경기 및 윷놀이, 고무신 농구 등 각종 경기가 진행되며 마지막으 로 행운권 추첨이 진행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군민의 날 행

사 및 울릉군민체육대회를 통해 군민의 힘을 하나로 집결 시키고 화합의 장이 될 것이다. 많은 군민들이 오셔서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육군3사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지역학생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공동 추진



울릉군(군수 남한권)과 육군3사관학교(소장 방성대)는 지난 12일 육군3사관학교 조국실에서 지역 학생의 진로 개발 및 양성, 상호발전 및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질의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울릉지역 학생의 진로 개발의 확장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시설 등을 공유하여 지자체·대학 간 협력 기반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협약 내용으로는 울릉군 학생 진로교육, 생도문화 체험캠프 및 학교방문 지원 등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육군3사관학교는 세계 유일의 편·입학 사관학교로서 50여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다양한 대학교육과 전문적인 군사교육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으며 사관캠프 및 다양한 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울릉지역 학생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화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캔들 공예’ 작은전시회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지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간 ‘감성캔들, 향기를 담다’ 작은전시회가 개최됐다.

이 전시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울릉군이 주관한 문예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실시한 캔들 공예 교육 프로그램 교육생들의 창작 작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감성에 향기를 더하고, 그 순간을 기억해 힐링하다’ 라는 주제로 40명의 교육생이 참가하여 다양한 캔들 원료와 소품을 활용하여 창작한 캔들 40여점을 선보인다.

시나몬 나무를 활용한 시나몬 캔들, 울릉도 호박과 다육이를 담은 가드닝 캔들, 마카롱과 케이크를 담은 디저트 캔들 등 고급 기법으로 만든 다양한 창작 캔들이며, 모두 울릉 주민들의 창작물로 울릉 주민들의 수준 높은 공예실력을 느낄 수 있다.

지난 19일 전시회장을 찾은 남한권 울릉군수는 우수한 작품에 감탄하며 “앞으로 꾸준히 군민이 함께 즐기고 체험하며 문화예술로 화합하는 울릉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군, 2022년 경북도 산림박람회 참가

울릉군 산림문화·관광자원 홍보 기회의 장 마련

울릉군은 지난 13일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22 경상북도 산림박람회’에 참가하여, 울릉군의 뛰어난 산림관광자원 및 고소득 임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2022 경상북도 산림박람회’는 경상북도가 주최·주관하며 ‘숲에서 길을 찾다, 숲으로 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경상북도 산림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산림분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홍보관을 포함한 총100여개의 산림유관단체, 기업, 대학교 등이 참여하여 산림포럼, 우수임산물 라이브판매, 숲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행사들을 진행한다.

또한 울릉군 부스에서는 울릉산삼공사가 기업 판매관을 설치하여 울릉군 명이나물, 호박식혜, 각종 나물을 판매하여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임업인들의 행사를 축하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울릉군의 뛰어난 산림을 홍보하고 임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산림박람회는 오는 15일까지 대구 엑스코 전시장에서 계속된다.

/김경학 기자



동해해경청 어선A호 응급환자 긴급이송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 22일 경북 포항시 구룡포 등방 90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서 발생한 응급환자가 발생하자 포항해경 소속 306함이 긴급출동, 포항항공대 소속 헬기에 환자를 인계해 인근 포항으로 긴급 이송했다./사진=포항해경 제공

독도박물관-호남관생물자원관-울릉도·독도연구소 공동기획전 “울릉도” 개최

울릉군 독도박물관은 국립호남관생물자원관 및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와 공동 기획한 전시인 ‘울릉도’를 지난 12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국립호남관생물자원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릉도’ 전시는 대양섬 울릉도의 고유생물과 자연 및 울릉도의 생활 문화를 주제로 기획했다. 대양섬이란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 폭발로 생겨난 이후 한 번도 육지와 연결된 적 없는 섬으로 오롯이 독

특한 환경을 지켜온 섬을 뜻하는데 이런 대양섬은 오랜 기간 그 섬만이 지닌 독특한 환경에 적응하여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 고유생물들을 품고 있다.

울릉도의 고유생물은 알려진 종만 해도 30여 종이 넘어 울릉도를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유생물은 다른 지역에는 살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사는 생물로 국가 생물주권의 핵심요소이며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식물학협회와

협업으로 우산마가목, 섬쭈박쟁이 등 울릉도 고유식물 세밀화 38점을 최초 공개하며 울릉해변해면, 울도하늘소 등 울릉도 고유 생물 표본이 다수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독도박물관이 소장한 해좌전도 등 19세기 고지도와 울릉도감찰일기 등의 고문헌을 비롯해 과거 오징어와 떼베를 이용한 미역채취 어업과 관련 민속유물 그리고 울릉도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울릉도 투막집 등 울릉도의 역사와 주민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경학 기자



독도·울릉도아리랑 범 국민 전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아리랑 대합창 천년의 소리 아리랑 문화로 흐른다... 밀양강 둔치서 공연 펼쳐



울릉도아리랑보존회

이번 공연은 황효숙 울릉도아리랑 전승자, 회원 등 9명이 참가해 울릉도 삶의 애환을 담아내고 있는 울릉도아리랑과 독도아리랑을 무대에 올려 많은 찬사와 환호를 받았다. 행사는 영남아리랑보존회, 대구아리랑보존회, 제주도아리랑보존회, 영천아리랑연구보존회, 문경새재아리

랑보존회, 울릉도아리랑보존회 등 전국 13개 지역 아리랑보존회가 참가해 국민의 삶, 애환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민요인 아리랑을 경창, 합창했다. 한편 울릉도아리랑보존회는 행사에 앞서 지난 14일, 경북 문경시 동로중학교 총동창회 초청으로 울릉도아리랑·독도아리랑을 공연해 찬사를 받았다. 황효숙 울릉도아리랑전승자는 “우리 울릉도아리랑과 독도아리랑을 널리 전파해 울릉도의 가치와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각인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울릉도·독도아리랑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기자

남한권 군수, 관외 중요사업 관계 기관 방문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대구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대학교를 방문하여 주요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대구지방환경청에 중요 사업인 울릉도 추산 용천수 먹는샘물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지원을 건의하고, 한국해양대학교와 의 장기적 상호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 12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울릉도 추산용천수를 활용한 먹는샘물이 내년 상반기 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박성돈 환경청 기획평가과장은

“직접 방문해주신 남한권 울릉군수께 감사드립니다. 바다로 버려지는 용천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하는 것은 물의 효율적 활용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울릉군의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13일에는 한국해양대학교로 이동하여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만나 한국해양대학교 울릉캠퍼스와 해양교육문화센터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2023년 섬의날 행사에 한국해양대학교가 세미나, 아카데미, 실습선 운영의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울릉군과 한국해양대학교간

MOU 체결을 위해 11월 중순경 도덕희 총장이 방문하기로 결정하며 논의를 마쳤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우선 먹는샘물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 박성돈 기획평가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울릉에 앞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관계 기관과 원활한 협조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방문에서 한국해양대학교와 상호 협력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울릉캠퍼스, 해양교육문화센터, 섬의날 행사 등 다방면으로 힘이 되어 주실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한번 도덕희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울릉군에 장학금 기부

지난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에 교육발전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사)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남한권 이사장은 “울릉의 교육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탁해 주신 장학금을 지역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우선 먹는샘물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 박성돈 기획평가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울릉에 앞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관계 기관과 원활한 협조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방문에서 한국해양대학교와 상호 협력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울릉캠퍼스, 해양교육문화센터, 섬의날 행사 등 다방면으로 힘이 되어 주실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한번 도덕희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울릉군, 2022 제23회 부산국제관광전 참가

울릉군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2022 제23회 부산국제관광전’에 4개절 관광객 유치에 위한 관광 홍보에 나섰다.

올해 23회째를 맞이하는 부산국제관광전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제22회 행사 개최 후 3년 만에 재개 되는 행사로, 30개 국가, 200여개 기업 및 약 430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국내관광산업 국제경쟁력을 제고 하고 국제 교류 역할, 하반기를 겨냥한 국내외 관광정책 및 여행상품을 홍보하는 대규모 행사다.

울릉군은 홍보부스를 통해 가을·겨울 울릉도 여행에 대한 관광정보 제공과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진행 등 방문객 고객 활동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관광홍보를 진행했다. 홍보방법으로는 울릉도를 방문하는 선포 예약·예약과 관광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앱과 주요관광지·사진 포인트 소개, 울릉힐링로드와 각종 관광상품을 제공하며 지역특산물 전시·시

식 행사 및 울릉도·독도를 쉽게 알아가고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운영하여 울릉도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특히 이번 홍보전에는 대형여객선 운항, 울릉공항 건설 등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사계절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임을 소개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울릉도·독도 관광객은 현재 증가 추세로 현재 3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올해 역대 관광 입도객 기록을 넘어 연말까지 50만 관광객을 목표로 관광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울릉공항 건설, 대형여객선 취항 등으로 교통 체계의 구축이 완성되면 100만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들어와 앞으로 울릉군은 다양한 관광바람이 불어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릉군

안전대전환 점검

울릉군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울릉군 북면 나리에 위치한 국가민속문화재 제266호 및 제257호의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문화재 집중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안전의식의 증진과 사회 전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 예방 활동이다. 이날 안전점검은 울릉군 김규율 부군수를 비롯해 울릉군 관계자 및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재 안전경비원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문화재 집중 안전점검에는 드론을 이용해 문화재 건축물 상부의 안전 상태를 확인했으며 그 외에도 △소방설비(소화기, 소화전 등) △방범 CCTV 작동상태 △주변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확인 점검했다.

울릉군 김규율 부군수는 “매년 정기 점검과 특별 점검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릉군,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교육 실시

마가목 열매를 활용



울릉군은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농산물 가공과 유통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과 예비가공창업자 20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하반기 농산물가공창업 아카데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주된 내용은 농업인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울릉 임산물가공과 와인’이란 주제로 마가목 열매를 활용한 와인 제조기술과 가공기술 표준화이며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가공창업 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교과목을 편성했다.

교육에 참석한 A농업인은 “울릉군은 도서지역으로 농식품 가공관련 심화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 군에서 양질의 지식과 최신의 마가목 와인 제조기술을 제공해 주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교육과정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지역의 중요 자원인 마가목 열매를 활용한 와인과 발효제조 관련 전문교육 수요자가 많이 배출되면 농특산물 가공산업기반이 더욱 견실해질 것이다. 향후에도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농특산물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농가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시

울릉군보건국의료원에서 오는 28일까지 ‘2022년 공공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울릉군보건국의료원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금연 상담사, 금연 지도원, 울릉군경찰서, 환경위생과 위생팀을 단속반으로 구성했다.

점검은 공공이용시설 및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상으로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과 학교 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정류소, 주유소, 음식점 등 금연구역 흡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빈번한 곳을 위주로 집중점검 한다.

점검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공공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포함) 등이다.

울릉군귀농·귀촌연합회 회원모집

울릉군 귀농귀촌연합회는 성공적인 귀촌 정착을 위해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의 융화를 통해 살기 좋은 행복한 미래 건설을 위해 구성되고 있는 모임입니다.

- ▶입회요건 : 연령, 이주 기간, 직업 무관함(단, 주소지 울릉군 가능)
- ▶문의전화 : 791-3399, 010-9711-6789

(사)경상북도귀농귀촌연합회 울릉군연합회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
한수원이 만들어 갑니다

요즘 내 친구 한수원이 엄청 바빠요!

미세먼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고장난 날씨도 고쳐주고
아픈 지구를 낫게 해주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 만들고 있거든요

 한국수력원자력주